

2018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 정책

초판 1쇄 발행 2018년 6월 28일

펴낸이 사공 일

총 괄 송경진

지 원 우형주

디자인 김정진

인 쇄 한진기획인쇄

펴낸곳 세계경제연구원

전 화 02-551-3334~8

팩 스 02-551-3339

등 록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ISBN 979-11-6177-006-2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2018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트럼프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 정책

Charles Freeman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질서

Guy Sorman

트럼프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정책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찰스 프리먼
(Charles Freeman)



찰스 프리먼

—•—
Charles Freeman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은 법률가 출신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 협
상 책임자로서 활동한 바 있다. 펩시코(PepsiCo)의 아시아, 중
동, 아프리카 지역 글로벌 공공정책 및 정부 담당 부사장을 역임
하는 등 지난 25년간 미국 기업들의 아태지역 시장 진출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정책¹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 협상 책임자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현실의 일부를 무역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5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생각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왔습니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이상주의적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키고 그 여파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던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국가와 경제가 서로 평화롭게 무역을 하지 못했던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정책 리더들이 취했던 이상적인 생각은 “시장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되 근본적으로는 국가 간 경제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¹ 본 글은 2018년 4월 11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사 강연 포럼(IGE DLF)에서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의 강연한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강연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본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역사에서 줄곧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칼라 힐스(Carla Hills), 샬린 바셰프스키(Charlene Barshefsky), 웬디 커틀러(Wendy Cutler)를 비롯해 최근 무역정책을 이끈 거물들을 포함한 모든 협상가들은 적어도 무역정책을 만드는 데에는 더욱 고차원적인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서정연한 무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무역정책에는 매우 포퓰리즘적인 이념도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반영하려는 욕망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미국의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창설을 도우려던 노력이 실패했던 까닭은 미국 의회가 국가 주권 의식과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이유로 법안을 통과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국익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적 정책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개념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히 파괴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욱 이상주의적인 국제무역으로의 회귀를 원하고 규범에 입각한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흐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질서정연한 무역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는 실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넓게는 무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인, 그중에서도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배신감을 느끼며 이런 이상주의적인 무역정책이 고결한 국제적 목적을 추구하느라 미국인은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층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전략을 강력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의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규범에 입각한 질서 확립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자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이런 정책을 추구해야 미국이 승리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미국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거의 없는 투명하고 규칙에 입각한 세계질서 속에서 더 나은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강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대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전 세계적으로 과잉공급 상태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 다시 말해 미국의 철강을 보호하지 못하면 미국의 국가안보도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정책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파국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철강이든 사이버보안이든 디지털 무역이든 무역정책에 안보를 개입시킨다면 세계질서에 심각한 와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질서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런 정책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물론 232조 정책들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행정부가 한국을 제외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보를 끌어들이려면 가장 훌륭한 동맹국에는 예외를 두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웠습니다.

우방이기는 하지만 동맹은 아닌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도 포함되었는데 일본이 제외되지 않은 점이 다소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무역정책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역정책에 안보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무역정책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즉,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계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복성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는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절차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야에 지나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방적 제재나 일방적 관세 부과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무역 체제를 유지하려는 생각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들이 불공정에 직면해 마음대로 이런 종류의 긴급 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쓸모없는 제도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WTO의 존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방적인 관세를 발동시켜 WTO를 내던지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관세 발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국과 관련한 백악관의 분위기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파괴적인 글로벌 문제입니다. 중국 내 미국의 경쟁력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동맹국의 경쟁력까지 무너뜨리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중국산 철강이 과잉생산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의 경우, 중국 중앙정부는 철강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성과 도시에서 이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은 석탄이 풍부하다는 것 외에는 자연적인 경쟁우위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성과 도시가 각자의 철강 공장을 원하는 듯했습니다. 석탄 말고는 철강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은 근본적으로 노동 집약적 생산 원자재가 아닙니다.

중국은 자연적인 경쟁우위가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 철강 생산 능력의 50%를 건설했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와 각 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세계 최고 철강 생산국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베이징 중앙정부의 지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통계수치만 보고 “실제로 중국이 자국 생산 철강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수출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대미 수출은 얼마 안 된다”라고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생산과 과잉생산 때문에 전 세계 철강 기업들이 공정하고 의미 있게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고 중국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다른 부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1세기 초에는 광섬유 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태양전지판과 풍력터빈도 엄청난 양을 생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경쟁우위가 없으면서 국가 보조금과 중앙정부의 생산 장려 그리고 생산을 종결해 과잉생산을 해결할 능력의 부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중진국의 함정을 피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 생명공학, 반도체를 포함한 온갖 새로운 첨단 부문에서 세계 리더로 올라서고자

하는 중국의 새로운 청사진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엿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 분야에 진출해서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과잉생산은 세계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사람이라면 태양전지판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 매우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고 반도체 업계의 소규모 생산업자라면 3~4년 내로 차세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혁신하고자 반도체 생산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진출해서 기술 사이클, 즉 혁신의 사이클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등에서 주요 고용주체인 중소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텔(Intel)처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기업은 아마도 전 세계에 5개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에 대한 관세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의 혁신과 신산업 부문 개발 과정이 세계경제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할 건설적인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협상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간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을 해왔지만 대단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느끼는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개최된 보아오포럼(Boao Forum)에서 일련의 시장 개방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자 중요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리더가 이런 양보를 하도록 밀어붙여서 승리를 쟁취한 것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에도 이런 약속을 했지만 시의 적절하게 이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정책은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현재 경제 구조가 글로벌 경쟁에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모범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것 중에서 최고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해서 매우 기쁩니다. 그렇게 많은 재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다소 중대한 이행 및 집행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정이 탄탄하고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원칙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 단계 또는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열렬한 지지자의 입장에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행정부가 협상한 조건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웠습니다. 관세를 올리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세 인상이 크게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자발적 제한도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조치도 세계무역 체제를 약화시킵니다. 관세 인상은 방편이 되기도 하고 미국 경제정책의 포퓰리즘적인 입장에도 부합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고 솔직히 말해 글로벌 무역에서 한미 양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무역에서 새로운 기준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제 동료들과 한미재계회의(Korea-US Business Council)의 여러 기업은 한미 양국이 디지털무역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대화를 진전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분명 디지털무역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국경 간 개방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와 WTO는 데이터에 대한 제한, 특히 데이터 현

지화 노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동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업 손실이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비용이 두 배나 많이 들어가며 관세보다 제한하는 효과가 두 배나 큼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만큼 경제적 비용 문제도 고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제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QA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 정책

질의 응답

Q

무역정책에 정치적 고려가 끼어드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애초부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요르단과의 협정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 안보 및 지정학적 동기가 더 컸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이례적인 대통령이고 말과 행동이 매우 투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중국의 관행을 통제하려는 목적은 칭찬을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조치는 일부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에 그다지 친근함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트럼프행정부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론이 저처럼 뻗속까지 공화당인 사람들에게는 난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행정부 내에서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유지하려면 동맹국이 국방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이 미국의 소중한 우방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Q 시진핑 주석이 어제 보아오포럼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런 조치를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A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트위터(Twitter)를 통해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 다소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에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수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는 대부분 50:50 합작 투자로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생산 등의 영역에서 미국의 소유권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자동차 관세 인하보다 더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단지 중국의 관세보다는 투자 제한이 훨씬 더 중요한 도전과제입니다. 대중국 투자 제한과 수출에 관한 여타 행정 부담이 시장 접근 측면에서 고려할 때 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협상을 한 우리의 입장에서 그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면 기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낙관적인 입장이라면 단지 아주 조심스럽게 낙관적일 뿐입니다.

Q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의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역사가 깊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분쟁이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A 한동안은 작은 충돌이 있을 테고,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드러낸 핵심 위협을 해결하려면 뜻이 맞는 동맹국과 우방 그리고 중국의 위협을 인정하는 경제국들이 힘을 합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행정부 내부에도 일부 인사들이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맹국 및 우방과 협력해서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는 다자적 전략을 개발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발동으로 무역정책을 개시해서 많은 우방과 동맹국을 분노케 한 것을 이들이 기꺼워할지는 의문입니다.

좀 더 온건한 무역정책으로 회귀하고 미국과 중국이 도전 가운데서도 매우 생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는 매우 보완적으로, 우리 회원 대부분이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시장을 보호하고 개방하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 중국시장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트럼프행정부가 일부 미국 국민이 직면한 도전에 관심을 쏟는 만큼 이 문제에도 집중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 중 그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Q 트럼프행정부는 무역 문제를 다른 국제 관계, 안보 문제 그리고 정치와 엮는 것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행정부는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합니다. 7~8 차례 회담을 거친 후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멕시코와 양자적으로 직접 대화를 원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로 트럼프행정부는 TPP를 배제하고 일본, 중국과 직접 대화를 원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태양열 전지판과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201조, 지적재산과 관련해서는 301조가 걸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 관세를 부과할 품목 목록은 대부분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업계에서 나온 듯합니다. 트럼프행정부에 제출한 고충이나 불만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대비할 수 있게 말입니다.

A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무역과 비무역 문제를 어떻게 엮을지 추측해보려고 매일 아침 일어나 트

럼프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읽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사람만큼이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추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일을 벌여 놓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그중 일부는 반응을 보긴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스타일로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해서도 그 전략이 다소 먹혔습니다.

양자적 접근에 관해서는 우리 무역정책 전문가들은 다소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적 접근은 양자 간 무역 적자는 나쁘고 흑자는 좋다는 생각 그리고 무역 관계에서 흑자나 적자로 상대적 힘이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의 기초를 배운 학생 누구라도 양자 간 무역 적자나 흑자는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무역 데이터 수집 방식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무역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제가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구매하면 저는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의점이 제 서비스를 구매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등의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적 접근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의 TPP 재가입을 명백히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저희는 재

가입을 원합니다. 현재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의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리핀과 협상할 예정이라는 소문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협상하기 원한다는 말이 돌고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불만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한국과 맺은 다른 협정의 이행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는 지극히 타당하고 온건한 이유입니다. 한국이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나 상무부에 “세탁기 등의 수입이 너무 많다”는 등의 많은 의견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상공회의소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 폐쇄보다는 시장 개방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Q 저는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일합니다. 이번에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소규모 기업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합니다. 한미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우호적 대표단으로 미국상공회의소와의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출발이 임박했지만 대표단이 무엇을 하거나 언급하거나 혹은 강조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A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눌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기업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기업 간 협력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화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무역대

표부나 유사한 기관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앞으로 한국시장이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얼마나 더 개방할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화요일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의 관계와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협회나 협회 내 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단체들과도 가까운 사이이므로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Q 오늘 말씀하신 한국 및 미국이 중국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문제는 유럽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A 한국, 일본 등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상공회의소들과 더욱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영국은 아직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그 일을 하도록 맡겨졌습니다. 기업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각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의 기업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독일산업연맹(BDI)에 계신 분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주신다면 기꺼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Q 매우 기초적인 경제이론 문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후 시장에 10조 달러 이상이 풀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는 4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국가에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상품을 수입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감세와 함께 인프라와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해외에서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 상품의 수입을 늘리도록 지속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낮추려면 저축은 늘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세를 적극 지지하고 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미국 업체가 불확실성이 높다고 느껴 많은 현금을 쌓아뒀습니다.

감세는 임금과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일하는 미국 국민이 느끼는 압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을 통해 세계화에서 뒤쳐진 미국 국민이 혜택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계층에 매우 연민을 느끼고 무역정책에 냉정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이러한 연민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강력한 정치적 도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계층의 국민이 그의 리더십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Q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A 20세기 이후 오랫동안 인도를 동아시아-미국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인도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와 여러 정책 이슈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도를 아시아의 체제와 무역 체제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인도의 참여를 높이려는 바람과 중국의 잠재적 견제 세력으로 인도를 끌어들이야 할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여러 모로 아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인도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는 중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에 우호적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의 정치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Q 트럼프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만약 한국 정부의 관료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A 며칠 전 한국에 온 이후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를 너댓 번은 들은 듯합니다. 제가 만약 한국의 행정 관료라면 피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여러 근본적 이해관계를 공유합

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근본적인 경제 이해관계가 큽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막대한 투자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좋은 뉴스거리입니다. 잡음이 있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있지만 중국에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살며 일하고 미국에도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살며 일합니다.

우리는 이 분쟁을 극복할 것입니다.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하기에는 서로 아주 많이 연계되어 있고, 서로의 성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깝습니다.

중국과 미국 양국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쟁을 잘 관리해서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을 비롯한 역내 우방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대화하듯이 미국과 중국 양국이 대화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양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이어줄 대사나 고위 관료가 모두 임명된 상태가 아니라면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크 내퍼(Marc Knapper) 대사대리를 대단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공식 대사가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Q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려는 이유가 중국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산 비중이 매우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셨습니까?

A 이 문제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을 통하든 다른 지역을 통하든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철강의 양이 사실 매우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의 실제 수량이 아니라 세계시장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입니다. 그게 핵심이고 문제입니다.

Q 미중 분쟁과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상호 보완성이 많다고 다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모든 무역 갈등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초강대국과 떠오르는 초강대국 사이에 근본적 갈등이 있을 경우, 즉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진다면,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계속해서 폭풍이 올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의 최대 교역국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키디데스 함정이 매력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1972년에 제 부친께서 중국에 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중국 전역의 교실에서 ‘영클 샘(Uncle Sam)’ 인형을 불태우곤 했습니다. 우리는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중국과의 본격적 무력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 철학적, 정치적 차이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미국 재계가 미중관계의 균형 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낙관적으로 본다면 미중 간에는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재계가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정체된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 궤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치사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추세와 통계를 읽는 것과 관련해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1977년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사망했을 때 미국인 2,000만 명 중 1명이 자신의 직업을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 전문가로 등록했습니다. 20년 후에는 그 비율이 미국인 30만 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었다면 현재 그 비율은 미국인 5명 중 1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추세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Q 한국정부가 통화시장에 개입하지 못하게 미국에서 압력을 넣었고, 환율 문제를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통화 조작이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 조작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상공회의소는 통화 분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부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여해야 할 압력도 그다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Q 생산 네트워크가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무역 장벽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들어가는 중요 투입물과 관련하여 관세에 예외를 두는 절차에 대해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무역대표부와 관세를 구성한 사람들의 역할은 미국 재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우리 회원에게는 매우 유익한 조치가 되겠지만, 회원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 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예외 요청을 제출하고자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Q 디지털 무역이 중요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디지털 무역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25일에 발효될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미국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매우 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처럼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나 법을 집행하는 방식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대체로 관습법을 따르고 유럽은 민사 재판을 따릅니다. 미국과 유럽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미국 기업이 원래 데이터를 사업적 동인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시대를 앞서 나가거나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에서 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데이터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요와 어떤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생성되든 간에 적어도 공정한 몫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Q 저는 여러 다자 회의에 참석했는데,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는 미국에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다자주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데이터 보호와 흐름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글로벌 비즈니스와 세계 시민의 안녕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A 다자주의 대 양자주의의 관점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근본적으로 다자주의를 믿습니다. 저희는 WTO와 그런 국제기구 등을 지지합니다. 미국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활동할 때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매우 많은 비중을 둡니다. 다자주의가 없다면 해외시장의 안전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충격적 사례가 유아무야 대충 넘어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의 일부로서 여전히 매우 생소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공공정책을 도모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 도구로 데이터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취할 방식은 바로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보험 계약 번호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개인정보의 문제일까요?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정보를 보호해야 하나요?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시의 거리에 현대자동차가 돌아다닌다는 사실과 이런 자동차에서 서울로 보내는 정보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입니까? 그 데이터를 미국에서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한국의 보험계약 데이터를 꼭 한국에서 보관해야 하나요?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고 의료나 농작물 배분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거대한 장벽을 두르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이나 미국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물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보호할 수단을 관리하고 익명화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자에서 꺼내놓기에는 너무 위험해”라고 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능력이 있는 국가를 좌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떤 나라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맡겨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지점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양국의 교역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의 관행이 한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한미관계가 한국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파행을 일으키지 않을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 미국에게 만큼이나 한국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며칠, 몇 개월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인과 유럽인은 며칠, 몇 개월의 단기간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경제대국뿐만 아니라 군사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려면 장기적인 사고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중국이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전략적 혹은 여타 정책은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계의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중국을 배제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체제에서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전 세계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만드는 방식으로 중국의 지분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전략적 사람들입니다. 또한 중국 역사에서 자국 내 사건으로 인해 전략이 뒤집힌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역사를 아직 다 보지 못했고, 미국이 중국과 아시아, 세계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지적인 전략을 펼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반지식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배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문성이 있는 척하던 이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과 저우언라이(Zhou Enlai) 전 중국 총리가 나누었던 대화가 자주 인용됩니다. 닉슨이 “프랑스 혁명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저우언라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직 말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2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르다니!”

라며 감탄했습니다. 제 부친도 그 현장에 계셨는데, 당시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저우언라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저우언라이는 그 질문이 “현재 파리 거리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으로 이해했고,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중국인이 장기적 안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Charles Freeman

Charles Freeman, senior vice president for Asia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has helped companies navigate complex markets in the Asia-Pacific for 25 years. His career included senior stints in government, business, law and academia. Formerly he was principal U. S. trade negotiator with China. He also served as PepsiCo's vice president for global public policy and government affairs for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¹

Charles Freeman

Senior Vice President for Asia
U.S. Chamber of Commerce

I want to start by talking about US trade policy broadly – what it is and what it isn't. President Trump brings a certain strand of American political reality to the trade shelf as it were.

But the US trade policy for 75 years has been kind of caught between two different competing strands. There is the idealistic strand after World War II which recognized that the great conflict that led to World War I and continued in World War II was created by the inability of nations and economies to get along to trade one another peacefully.

So the idealistic thought from US policy leaders at the time was “Let's create a rules-based order that focuses on market liberalization but that fundamentally tries to preserve an economic peace among nations.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Mr. Charles Freeman, Senior Vice President for Asia, U.S. Chamber of Commerce,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April 11, 2018.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And that strand has been repeated throughout the US history. All negotiators including the titans of recent trade policy years like Carla Hills, Charlene Barshefsky and Wendy Cutler have all perceived from the notion that at least there was a higher reason to be working on trade policy, that it wasn't simply about US national interests, but that it was more fundamentally about building this rules-based order in which orderly trade continued.

On the other hand, there has always been a very populous notion in the US trade policy. A desire to put "America First" goes way back. In fact, the original efforts by US trade policymakers after World War II to help create something called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failed because the US Congress refused to pass it for very populous notions of sovereignty and other things.

So the "America First"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s focusing on a more narrow definition of the US interests has been there all along. Despite the fact that we think of Trump as being kind of a great disruptor, the reality is that he is part of the long trend.

The other trend which is the return to a more idealistic approach to international trade and the idea of creating a global rules-based order is still there. There are plenty of people still working on these issues.

So I think it is very likely that there will be a return to a

much more orderly approach to trade over the years.

That said, the issues that President Trump has raised are genuine, particularly with China but more broadly with respect to trade. Americans, particularly certain segment of the population, feel betrayed by American trade policy and feel that this idealistic approach to trade put Americans behind these lofty international goals. Therefore, that group of Americans really believes strongly in the President's approach to trade, sort of a zero-sum approach.

The U.S. Chamber, I should say, is more aligned with the internationalists in the sense of that US policy should be primarily focused on building this rules-based order because we think that is where America wins and that actually is where putting "America First" is. Then our companies are able to compete better in a global order that is more transparent, more-rules based where governments have fewer opportunities to intercede in the markets.

So the U.S. Chamber continues to push very hard on that front. We were against, for example, the tariffs under Section 232 on steel and aluminum, not so much because we failed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worldwide glut in these commodities but because we don't think that the rationale for imposing tariffs, namely that a failure to protect US steel is a failure to protect US national security, is right.

The interjection of security issues into trade policies is very

worrisome because it's a bit of a slippery slope. A trade policy that allows governments to invoke security, whether it's the question of steel or the question of cyber security, digital trade, really disrupts the global order significantly because it allows for a fundamental excuse from conducting a rules-based trade policy. So we are very against these policies.

We were, of course, very pleased that once the Section 232 policies were announced that it didn't take long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cognize and grant Korea an exemption to those policies. That's befitting. If you are going to invoke security, you might as well exempt some of your best allies. So we are very pleased that the exemptions went through on that.

We are struggling a bit to try to understand why Japan is excluded from that exemption list, when countries like Mexico and Argentina who are friends but not allies were exempted.

So there are contradictions in the trade policy that trouble us. I think they are invoking this notion of security more for this populist approach to trade, a tit-for-tat for some very vulnerable Americans in steel and aluminum producing parts of the country. But the way to go about is not the way they are going about. We don't agree with that process.

Similarly, with respect to China, the invocation of tariffs under Section 301 of the US trade law which allows the

President to take extraordinary unilateral measures in the face of the sense of unfairness is very troublesome. Again, the invocation of unilateral sanctions or unilateral tariffs flies against this notion of trying to maintain a rules-based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f countries are able to invoke these kinds of emergency tariffs at will in the face of unfairness, it sort of mak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 irrelevant institution.

Many of us including in the US business community and including in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have worked very hard to promote the existence and the smooth sailing of the WTO. Tossing the WTO aside by invoking unilateral tariffs is troublesome. I will say we are very sympathetic with the sentiments coming out of the White House with respect to China, notwithstanding that we don't agree with the invocation of tariffs.

We think that at this point, China's economic policy is a fundamentally disruptive global challenge, not just to US competitiveness in China but to other allies' competitiveness around the world. I will explain why.

Essentially, we did see this beginning with overcapacity in Chinese steel but it has spread to other secto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 number of tools of state directed capitalism to promote particular industries.

In steel, there was a command that went out from Beijing

that building steel factories is good. That was taken up in the provinces and cities. Soon every province and every city seemed to want its steel mill,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China has no natural competitive advantage in steel other than high volumes of coal. But they don't have the other materials to produce steel. Steel fundamentally is not a labor intensive production commodity.

China built 50 percent of the world steel capacity with no natural competitive advantage, simply on the back of a combination of subsidies from the center and the provinces and from this fiat that came down from Beijing that "We want to be a world leader in steel."

As a result, you can quibble with the numbers and say, "Well, it actually consumes most of its steel. It exports very little, particularly to the United States." The reality is that with that kind of production and with that kind of overcapacity the world's steel companies cannot compete on a fair and meaningful basis.

But as China has come up the value chain and as the Chinese economy has grown so extraordinarily successful, what we've seen is kind of the pattern replicated in other sectors. We saw that in a fiber optic cable in the early 21st century. We've seen it in solar panels and in wind turbines where China is an enormous producer of these, with, again, no real natural competitive advantage but this combination of state subsidies, promotion by the center of this kind of

production, and inability to kind of wind up and consolidate overcapacity.

We are seeing this again with China's new blueprint for avoiding the middle income trap to be a world leader by 2025 in all sorts of new, modern and cutting edge sectors, whether it's artificial intelligence, whether it's life sciences, or whether it's semiconductors. The challenge for all of us is that we all are trying to get into these things and be as competitive as possible in these sectors.

If China produces essentially overcapacities, it does a number of things that are damaging to the global economy. If you are an installer of solar panels, you would be very happy that the price of solar paneling is down. But if you are in semiconductors and if you are a small producer in semiconductors, you would put R&D money into producing semiconductors, so that you can innovate to get that out next generation 3 or 4 years in a cycle.

But China comes in and collapses the technology cycle, the innovation cycle. It means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who ultimately are the primary employers of Americans and Koreans and others will have a very difficult time competing in the global stage. The Intels of the world may be five because they have the resources to compete in this market. But the smaller companies just won't.

That's a fundamental challenge. Even though we disagree

at the US Chamber of Commerce with the tariffs on Korea, the process by which China is innovating and China's developing these new industrial sectors really presents a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way we think about the global economy.

We would like to find constructive ways to get through this. We do think negotiation is the best way forward. We've had negotiations for the last 15 years related to these issues and we haven't had a lot of success. We certainly can understand the frust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t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s was mentioned earlier, President Xi Jinping at the Boao Forum yesterday announced a series of proposed measures to open the market. These are great. This is important. I am not sure whether or not President Trump can and should take a victory laugh that he forced to the Chinese leader to make concessions, particularly, since all of these promises by Xi Jinping have been made before. They haven't always implemented on a timely basis.

We think all of the things he's announced are very important. We welcome them. We are cautiously optimistic. And we are very hopeful. But it still doesn't change the fundamental challenge that China presents to glob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its current economic structure.

We have recognized the KORUS FTA as our gold

standard. It's the best free trade agreement we have. We were absolutely delighted tha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d the Korean trade minister were able to reach an agreement to make sure that the renegotiation of the KORUS was effective and taken care of. We didn't think that it needed that much renegotiation. We thought that there are some critical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questions related to the KORUS. But fundamentally we thought it was sound and didn't need to be re-opened.

I will say that as enthusiast because we are about coming to a closure or conclusion on the KORUS, at least in principle. We were a little troubled by the terms that were negotiated by the US administration. We were not keen on the raising of tariffs. That's just something we don't think is necessary or useful.

We were very troubled by frankly the voluntary restraints on exports of Korean steel. That again undermines the global trading system in our view. Although it's expedient and it answers to again that populous strain in US economic policy, it's not good for business ultimately.

That said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KORUS, there are other things we should be doing together to advance the Korea-US relationship and frankly to advance the US-Korea leadership of global trade around the world.

I am thinking in particular of the importance of reaching

new standards in digital trade. We are here right now with my colleagues and a number of our companies under the Korea-US Business Council working to advance the dialogue to make sure that we are increasingly in the same place on digital trade issues.

Obviously, in any time you are dealing with digital trade, there are interests of privacy and there are interests of expedience in the use of data. Mr. Zuckerberg was testifying on Capitol Hill earlier this morning on these subjects.

We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we are maintaining as open borders as we can for data, while protecting privacy.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WTO have done studies on restraints on data, particularly data localization efforts – the efforts to maintain data within borders for security reasons extensively, it is costly twice as much, something around \$100 billion a year in business losses and it is effectively twice as restrictive as tariffs.

As we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privacy, we also want to think that there is an economic cost here. So being overly restrictive isn't good for anybody.



QA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Questions and Answers

Q You said that you are disturbed by the fact that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entering the trade policy. But in effect, the US free trade agreement from the very beginning was more motivated by the political, security and geopolitical considerations than economic, starting out with Jordan. The U.S. Chamber of Commerce was very helpful when we did the KORUS FTA. At the Congress, much was driven by the fact that Korea is an important ally.

President Trump is a very atypical president and he does and says things in a very coarse way. You seem to be caught in between criticizing some of the ways he was doing it and applauding some of the end purposes such as controlling China's practices. Trump said he will exempt them from some of the harsh measures. In so doing, he is not showing too much friendliness to Korea. Do you think to some extent it reflects the Washington's attitude toward the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A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lly views Korea as a genuine partner and ally. I think the methodology of the President may be challenging and difficult to understand for those of us who are deep state Republicans like myself. But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a recognition of how important the US-Korea relationship is with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 has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whether it's the need for allies to spend more to preserve the US troops and that kind of things.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that he recognizes Korea is an invaluable friend and in the region. I hope he maintains that belief.

Q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Xi Jinping's remarks at the Boao Forum yesterday. Xi said China will strengthen intellectual property and lower tariffs on autos. Why do you think Xi has come up with these measures? What sort of response can we expect from Trump to these offers?

A President Trump has already reacted on Twitter. He was very pleased and he took a little credit for President Xi's remarks. The reality is that tariffs on autos have been going down pretty consistently in China for a long time. The US doesn't actually export a lot of autos there or here frankly. Most US automobiles sold in China are produced in China on 50-50 joint ventures.

I think it would be more interesting, frankly, than reducing tariffs on autos if China reduced the equity caps on US ownership on automobile production and a lot of other areas. Chinese investment restrictions continue to be a much more significant challenge than tariffs alone. Investment restriction and some other administrative burdens on exports are the real story in terms of market access considerations.

Obviously, we welcome great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for those of us who have been negotiating with the Chinese for 20 years or so, we saw these problems before. I'm delighted if these result in increased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but if I'm optimistic, I'm only cautiously so.

Q I think the current problem is basically a problem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will not pursue the intention of the US. When you think about the long history of China, they are not pursuing an international rule-based order. So, I would like to know your prospect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Will it be contained in a smooth way or otherwise?

A I think we will do for a bit of a skirmish for a while. I don't think it will be smooth. Ultimately, though, I think resolving that central challenge posed by China will require that like-minded allies and friends and economies that recognize the challenges that China presents get together and create some architecture that helps keep the challenges that emanate from China within their guardrails.

I think there are some with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are pursuing that approach. They are trying to work with allies and friends to develop the kind of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China challenge. I am not sure if those people, those officials were all that pleased that the opening salvo of Trump's approach to trade was the Section 232 which angered a lot of friends and allies by its approach.

I am hopeful that we'll get back to a more moderate approach to trade and that the US and China can continue to have what is ultimately a very productive relationship

notwithstanding the challenges. We have had a very complementary trade relationship. A lot of our members are doing quite well in China.

We want to continue to protect and open the market for the Chinese market for our membership. We hope the Trump administration focuses on that as much as the challenges to the narrow segment of the American population. But none of these is going to be easy.



We have see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likes to link trade matters with other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y matters and politics. Even after the initial agreement on the KORUS renegotiation, he immediately responded that he would like to wait until the dialogue with North Korea. So how likely would he be to link the trade issues to other issues in the future?

The Trump administration prefers to negotiate bilaterally rather than multilaterally. As there is not much progress made in NAFTA renegotiations even after the 7th or 8th dialogue, the US wants to talk directly with Mexico bilaterally. And for the TPP, too,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to talk directly with Japan outside of the TPP framework and also directly with China.

On tariffs,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regards with steel and aluminum, section 201 with solar panel and washer, and section 301 with intellectual property. I have a

feeling that a lot of its list came from the industry, including the US Chamber. Do you have any other list of grievances or content you have submitt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so that we could be prepared?

A In terms of trying to speculate what President Trump will do and in terms of linkage with non-trade matters, I wake up every morning and read the Twitter feed and I am as surprised as anybody else. So I'm not going to try to guess on where he would go. He does like to put things together and see what happens. I think some of that has just tried to get a reaction. I think he has been very successful with that style in his business. He's seen some success in his presidency with that.

In terms of the bilateral approach, the thing that troubles those of us who are trade policy wonks is the President's approach on bilateral seems to be driven by this notion that bilateral trade deficits or surpluses are bad or good and that that's how you measure the relative strength or success in trade relations.

Any student of macroeconomics 101 knows that bilateral deficits or surpluses essentially mean nothing, not only because of the way that trade data is captured but because they don't reflect the broad trade issue. I have a trade deficit when I go to a Seven Eleven and buy a coca cola but I don't expect them to buy my service. The fact that we have a trade deficit with Korea and some others is natural to a certain

extent. I think that's what drives a bilateral approach.

I do think that we at the Chamber certainly support the United States returning to TPP and we were disappointed when the President withdrew. We would like to come back. I am not sure at this point that there are any active new FTA negotiations on the table. We hear rumors of the Philippines. We hear rumors that we would like to do something with Japan but I don't think Japan is particularly interested right now.

Grievance probably is a too strong a word. The US Chamber has concerns about implementation of KORUS and other agreements with Korea. Our members are anxious to do business here and to be successful here, for, we think, perfectly reasonable and benign reasons. In some cases the restrictions on their ability to do business here are unfair and not good for Korea. We don't submit a whole lot of things to the USTR or to Commerce that says, "We think that imports of washing machines and other things are too much." That's not really our business. We are much more focused on opening markets rather than keeping our markets closed.



I am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We are sending a small delegation of business to Washington. It is a friendly delegation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Korea-US economic relations. The delegation has an event with the US Chamber, too. Would you have any last minute advice on what should do, say or emphasize?

A It really depends on the audience. I think when you talk to Capitol Hill, you want to stress the investment and the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When you talk to our companies, you want to talk about the cooperation and the closeness of the partnership between businesses. When you talk to USTR or others, you want to talk about how much more open the Korean market is going to be to all sorts of exports and investment from the United States.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you on Tuesday. We are thrilled at the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e have with KITA. So keep doing what you are doing. If we can be helpful at all to KITA or any of our friends in the Association, we are delighted to help. We think we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so we are there for you.

Q The issues that have been portrayed here with regards to China for Korea and for the United States are the same for Europe. In what way ar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eaming up for solving this?

A I think we have to do a better job reaching out to our counterparts in Berlin, Paris and the UK – the UK is still part of Europe – as well as in Seoul, Tokyo and others. We've kind of let our governments do that in the past. We really need to do a better job as businesses and make sure not just individual governments hearing from us but there is a greater consensus among businesses across Europ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f you got the hotline

to someone I can talk to at BDI (the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I would be happy to make a call.

Q It's kind of a fundamental, basic economic theory issu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ore than \$10 trillion has been put into the market, especially with the Federal Reserve having injected \$4 trillion. Now the economy is coming back. The US economy is seeing almost full employment.

Trump is asking more countries to invest in the US, to import more goods from the US, and to reduce export to the US. He is reducing taxes and spending more on infrastructure and military. All these things increase aggregate demand. It means the US needs to import more goods from abroad. So your trade deficit issues cannot be solved. Then, I am afraid Trump will continue to use power and pressure to ask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import more. What is your forecast in coming years?

A I think we all know that the way to reduce trade and current account deficit is to increase savings and reduce consumption. Our fiscal deficits are a challenge. We are very supportive of the tax cut. We think it's necessary. There was a lot of uncertainty in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before that, so there has been a lot of cash built up needed to be spent.

We think that the tax cut is good for wages and for workers.

It's important that we reduce the pressures on working Americans. I think the President in his trade policy is really trying to benefit and help the Americans that have been left behind by globalization. I think on a basic level he is just very sympathetic to that community and his trade policy reflects that sympathy more than it does hard economics.

We can argue about whether that's an inappropriate way to conduct economic policy through emotion. But it's certainly proven to be a powerful political tool. I think the President has sensed the appreciation from that community of Americans for his leadership.



What is the mainstay of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or a lot of years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re has been an interest and an effort to draw India greater into East Asia-US circles. The idea being in part that as a democracy that India understands and knows where we are coming from and a lot of our policy issues.

But more fundamentally, isolating India from the rest of the architecture of Asia and the trading architecture of Asia didn't make a lot of sense. So I think there is a desire to increase that kind of participation as well as strategic focus on drawing India as a potential counterweight to China. I think that's some of the thinking that goes there.

The US-India relations are still very new in many ways. We are still feeling our way with that relationship. Modi has been a good friend to the United States but as we all know, Indian politics can be very dynamic. Who knows what will happen in the coming future.

Q What do you think the view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on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stance regarding the US-China trade dispute? If you were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what stance would you have taken?

A There is a parable I have been told about four or five times since coming to Seoul a few days ago about two whales and a shrimp. If I was an administrator, I would probably get out of the way.

That said,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are a lot of fundamental interests. We all know that Korea and China have a lot of fundamental economic interests as well. I don't think those are contradictory. The United States has enormous investments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Most of that is good news story. Despite the background noise and the challenges that have been raised in the press, we have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living in China and working in China and we have hundreds of thousands of Chinese doing the same in the United States.

We will get through this. We still have too much interconnectedness, too much at stake in each other's success

to let this fundamentally drive us apart. If we come into conflict, it's in many respects a mistake rather than a design.

I think the challenge that both Beijing and Washington have is: firstly, managing the disputes carefully, so that they don't get out of hand and secondly, making sure that we are communicating as well as we can with our friends and partners in the region including Seoul, so that everyone understands what we are doing.

It's a little hard to have that kind of communication flow when you don't have all of your ambassadors or other senior officials in place to make sure that those communic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smooth. But we hope that that situation will have cleared up quickly. We have enormous confidence in the charge d'affaires, Mr. Marc Knapper, here but we certainly would like to see a formal Ambassador confirmed as quickly as possible.



It is said that the US consideration of tariffs against Korean steel is because Korean steel contains too many Chinese components. Korea claims it's actually a very small portion. Has the US Chamber looked at this issue?



We have not studied the issue. We know that there is a very small amount of Chinese steel that actually makes its way into the United States, whether through Korean steel or other places. The issu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ncerned about is not the actual quantity of Chinese steel that makes into the United States but it's the depressive price on the global market's overcapacity. That's the focus and that's the challenge.

Q I think you are a little bit optimistic in the sense that despite this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despite this conflict between state capitalism and market economy, there is a lot of complementarity that you can work out.

But there is another view that all these trade conflicts are just a part of the big picture. When there is a fundamental conflict between the reigning superpower and a rising superpower – the Thucydides Trap, so even if the storm is over, there will be another one keep coming up. This is a fundamental conflict. So you cannot be optimistic and hope all these will be resolved by negotiation. Before World War II, the UK's largest trading partner was Germany and yet there was a war.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kind of view?

A I recognize the attractiveness of the Thucydides Trap argument. In 1972 when my dad went to China, there were still effigies of Uncle Sam being burned in classrooms throughout China. We had an active war that was very bloody. In the past nearly what is almost 50 years we haven't had a hot war with China. That's a pretty good record, considering that you can think of the fundament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differences that we have.

The US business community has played a huge part in maintaining balance in the relationship, so that we haven't come to blows. If I am optimistic, it's that I think the US and Chinese business communities still have that potential and power to maintain close and stable relationships, notwithstanding the political challenges that are out there.

I also think neither the US nor China is a static power. We have Donald Trump who may represent some fundamental change in the US political trajectory. We have Xi Jinping who may represent some fundamental change in Chinese political history.

A friend of mine used to quote the story about reading the trends and reading the statistics. That is, when Elvis Presley died in 1977, one in 20 million Americans listed their profession as Elvis impersonators. Twenty years later one in 300,000 Americans listed their profession as Elvis impersonators. If the trend continued, one in five Americans would be an Elvis impersonator today. I am always nervous about reading too much into trends.



Many reports have been out about the US pressing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intervene the currency market and about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e exchange rate issue with the KORUS renegotiation. I wonder what position the US Chamber of Commerce is holding on this.

A We do recognize that manipulation of currency can impact trade flows and therefore we strongly oppose currency manipulation. As a general matter, though, we don't get too involved in currency dispute issues. We will leave that to the Treasury Department and the Finance Ministry here to discuss. Certainly, I will say that this has not been a huge topic among our members. So we haven't had the real pressure to get involved.

Q Since the production network has been highly globalized, the trade barriers put by the US government might hurt the American businesses in China as well. I am just wondering what plans the US Chamber of Commerce has to deal with this issue.

A We are thinking about it. We have had some inquiries from our membership about the process of seeking exceptions to the tariffs because of critical inputs into item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But I think as a general matter the effort on behalf of the USTR and others who constructed the tariffs were to reduce the impact on American businesses and consumers as much as possible.

We are still assessing the situation. Certainly, it will be very helpful to our membership, but it will be to the extent they feel they like our help to submit the request for exceptions. But we haven't come to that point yet.

Q Since you mentioned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de and your intention to promote digital trade with Korea as well as with other countries, I would like to hear your personal view on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is to take into effect on May 25.

A I think that the US and Europe have come from very different places on the issue of privacy. We understand why European sentiments about privacy are as strong as they are and where that deep set European sensibility about privacy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has a slightly different mindset, maybe historical, maybe based in the way we conduct their laws. We are largely a common law jurisdiction and Europeans are largely a civil court jurisdiction. We come out of different places.

I think it also may be simply that US companies have been very quick to get ahead of the trend or get ahead of the curve on the use of data as a business driver. Now every company – whether they are American, European or Korean – is a data company regardless of which sector they are in. As a general matter, I think we would like to make sure that the needs of business and whatever privacy structure that is created are given at least a fair share. We now overprotect privacy when it's not required.

Q I have participated in many multilateral meetings. I have observed that the US position on multilateralism is fading, which is not good for the US. What

is the US Chamber of Commerce's position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nce on multilateralism? Also, on data privacy and flow and given the current data leak by Facebook, how can we make sure that free movement of data is good for the global business and for the well-being of global citizens?

A With respect to multilateralism versus bilateralism, the US Chamber fundamentally believes in multilateral approaches. We support the WTO and global institutions like that. Transparency and foreseeability are the things that American businesses count very heavily on when they are doing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Without multilateralism, it's a less safe world out there.

In terms of safe world for personal data, absolutely one can understand the need to protect privacy and personal data, particularly when you have a very sensational examples where breaches of personal data was compromised. This still is the very new part of how we deal with data. This is less than a decade old when companies have started valuing and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data as an analytical tool to drive public policy issues and business efficiency issues.

The way to think about that, though, is what exactly personal data is. What do you really need to protect? Do you really need to protect the number of your insurance policy? Is that really a personal data issue? Why shouldn't it be allowed to go across borders? Do you really need to protect certain emissions issues that come out of your cars you are driving?

Is the fact that Hyundai cars are being driven around the streets of Omaha, Nebraska and the information from those cars is being sent back to Seoul a personal data that needs to be protected? Do we need to house that data in the United States? Does Korea need to house the data of an insurance policy here in Korea?

Ultimately, in terms of the use of the data as an analytical tool and to do all the good it can for healthcare, for crop distribution and for all of these things, you have to have the largest pools of data possible.

It's one thing for China which has 1.3 billion people to draw a big circle around and walls around and say "OK, we're going to keep all this data." It's another thing for Korea with a smaller population or even the United States for the small population to say, "OK, we're going to hold on to the data for its own purposes." That really reduces the ability of that data to be used in proactive and positive ways.

We are still working obviously. Companies are working on maintaining the best possible means of protecting data and the best way to anonymize data. We are still in the opening parts of the story. But I think from the beginning saying "Ok, this is too dangerous to allow out of the box" would miss huge opportunities. And it will cost us in the long run, discourage the economies that have the ability to corral large pools of data for their own purposes.

Q How do you see the US-China trade dispute and how will it be resolved? Many analyses have it that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will likely be small. What is your take on this?

A We at the US Chamber really don't want there to be a point at which Koreans need to decide whether to trust the United States or to trust China as a custodian of its economic future. We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n work out our differences in ways which don't impact our other trading partners.

That said,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economic practices do damage the Korean interests. At those times the US-Korean relationship provides some sort of vehicle to make sure that you are insulated from those challenges.

The US Chamber is not in favor of a very aggressive tariff-driven policy towards China. We are in favor of building means for China to be less disruptive in global markets. We think that that effort, when and as it takes shape, benefits Koreans as much as Americans.

Q Chinese are the most strategic thinking people in the world and they are more long term oriented. They think things in terms of not just days and months but decades and centuries. On the other hand, Americans and Europeans tend to think in short term time span, days and months. By 2050 China wants to be not only an economic might but a

military power. Given this, to avoid the Thucydides trap the US needs more long-term thinking and strategy. What is your view?

A One of the things that we all have to remember is that for most of human history China was over 30% of global GDP. Its natural position is to be one of the strongest players in the world. I think the United States policy for the past 50 years, strategic or otherwise, has taken note of that fact and recognized that we couldn't exclude China or we couldn't keep China from that kind of major position in world affairs. Rather, we tried to build equities for China in the US-led global architecture in ways that made China a "responsible stakeholder" as Bob Zoellick called. Right now, China does not look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as we would like it to be.

They do have a long-term view and they are strategic people. There's also Chinese history that was fraught with strategy overturned by internal domestic events. I am not convinced we've seen the end of history for China. I do think that it will be wonderful if the US had a more consistent, intellectually driven strategy towards China, towards Asia and towards the world. We are living in anti-intellectual times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Expertise is frowned upon. So those of us who used to pretend we have expertise stop doing that these days.

About the Chinese having a long-term view, there's a

conversation that's frequently cited between Richard Nixon and Zhou Enlai, former premier of China, as a demonstration of how long and strategic the Chinese are. Nixon asked Zhou Enlai, "What do you think the lessons of the French Revolution are?" And Zhou Enlai famously said, "It's too early to tell." And Americans went, "Wow, 200 years is too early to tell!" My dad was in the room. There were some student riots on the streets in Paris right then. That's what the interpreter talked to Zhou Enlai about. He thought that the question wa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tudent riots currently happening on the streets in Paris?" Zhou Enlai said, "It's too early to tell." And from that we think the Chinese have a long-term view.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질서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기 소르망

(Guy Sorman)



기 소르망

— · —
Guy Sorman

프랑스 문명비평가 겸 칼럼니스트로 대표적 경제 및 철학 분야의 사회 참여 지식인이다. 프랑스 총리 자문(1995-1997), 프랑스 블로뉴 부시장(1995년부터 현재까지), “Greater Paris West”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시양스포(Sciences Po) 경제학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후버 연구소의 초빙연구원(1985) 등 1970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학계에서도 후학 양성에도 힘쓴 바 있다.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질서¹

기 소르망

프랑스 칼럼니스트 겸 문명비평가

지금처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시적 시야를 잃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국력과 연계된 추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즘 들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최강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40년간 중국이 일군 성공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아직 과도기에 있는 나라라는 점은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에는 막대한 규모의 빈곤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선진국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강대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 및 지정학적 관점에서 강대국과 선진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년 전 소련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소련을 강한 국가라

¹ 본 글은 2018년 4월 17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사 강연 포럼(IGE DLF)에서 칼럼니스트 겸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man)이 강연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강연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본인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어려운 국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야심찬 지정학적 전략을 뒷받침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국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매우 야심찬 지정학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야심을 뒷받침할 만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약점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토의 크기와 빈곤은 약점입니다. 동질성이 부족한 것도 약점입니다.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 경제 모델은 여전히 저임금과 조악한 상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혁신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인용되고, 미국보다 중국이 보유한 특허 수가 더 많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들 특허는 중국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이지도 않습니다. 대개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특허를 합쳐서 다소 변형을 가한 뒤에 새로운 특허로 등록한 것입니다.

중국의 고속철도가 좋은 예시입니다. 중국 철도가 최고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도 건설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조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 나온 혁신을 약간 수정해서 합성하는 것은 능하지만 100% 중국의 기술은 아닙니다.

중국의 약점은 1945년 이후 미국이 정의하고 적용해 온 국제

규범을 매우 혹독하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이런 국제 규범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베이징의 중국정부 관료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중국 함대가 캘리포니아 해안에 상주한다면 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7함대가 중국 해안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세계질서가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부분적으로 관여하여 정해진 규범에 따라 형성된 '미국의 질서'라는 점에 분개합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또 다른 약점은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는 중국 정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3대 주요 권력을 한손에 쥐고 마오쩌둥처럼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의 집중은 취약성도 드러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이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어찌면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듯 보이는 이 체제는 아마도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중국 리더들은 각 성, 시민사회, 지식인, 그리고 점차 비중이 커지는 민간부문과 많은 경쟁을 벌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결속

력과 정당성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무엇을 제안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제안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은 대안으로 삼을 만한 규범이나 중국의 규제 또는 개입으로 유지될 다른 세계 질서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현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반대하는지는 모릅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하고 태평양과 한국이나 어쩌면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국가가 중국이 규정한 영향권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공개한 여러 전략 문서에서 보았듯이, 중국이 장기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계는 미국이 통제하는 서양권과 중국이 통제하는 동양권 두 개로 나뉜 세상입니다.

이는 매우 모호한 개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동양권 국가들이 수용할 만한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대로 통제할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중국의 군대는 미국의 군대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에서 일본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동양에도, 서양에도 속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책과 군사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프로젝트는 아직 매우 모호하고 지금 당장은

미국 모델과 경쟁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곤란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체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매일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아침 트위터(Twitter) 메시지를 게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로 날리는 메시지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사법부, 군의 통제를 받는데 미국에서 이들은 매우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의 통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로 결정을 내려도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날이 갈수록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이고, 언젠가는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트럼프와 미국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트럼프와는 다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도 있었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래도록 유일한 세계의 경제강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정량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성적 측면에서도 사실입니다.

앞서 특허 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삼극특허(triadic registered patent)”를 보면 미국은 혁신 면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참고로 2위는 일본이고 3위는 유럽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훨씬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따라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미국의 매력과 사법 체계 덕분에 전 세계에서 특허와 돈이 모여듭니다. 미국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은 유일한 글로벌 경제이자 중대한 혁신의 근원이며 유일하고 강력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중국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문명이 중국인에게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규범과 규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옳건 그르건 법질서, 심지어 헌법마저도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좋은 싫든 사회적 규범도 모두 미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든 “미투(me too)” 운동이든 모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도덕적 혁명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소프트 파워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하드 파워이기도 한 미국이 어떻게 이런 하드 파워를 이용하고 어떻게 시리아, 북한, 리비아 등에 개입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이 개입할 것인지, 개입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 미국의 1대 대통령부터 개입을 원치 않았습니다. 워싱턴(Washington)이나 제퍼슨(Jefferson) 같은 국부들은 개입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야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개입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유럽이 해결해야 할 유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으며 어떤 일에도 미국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개입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군의 전략은 반드시 개입이 필요한 시점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고 그 시기가 오면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자국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미국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입하지 않되, 개입한다”는 전략을 고수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미국의 외교정책입니다. 외교정책이 모두 트럼프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미군에 대해 언급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뒤에서 이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에는 뒤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립주의”라는 환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입주의를 추구합니다.

유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합니다. 유럽은 주요한 경제 주체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군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대중의 견해가 지지하는 한 가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탈식민 전쟁 이후 더 이상의 개입은 불가하며 국익이 위협을 받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과 조율해 시리아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고 영국에 수십만 명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시리아전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유럽은 국제적, 세계적 주체로서 개입할 수단이 있지만 개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탄탄하고 통합된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시

리아에 개입한 주된 이유는 범질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북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간단히 정의하자면 국민을 착취하는 군사 독재 정권입니다. 매우 단순한 정의이지만, 우리는 북한의 국민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온갖 논의를 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북한 주민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협상합니다. 노예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의 운명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질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체제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독립적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개발하는 주목적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핵무기와 핵폭탄을 보유한 국가는 모두 1945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핵을 공격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핵폭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란, 인도, 파키스탄도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핵폭탄을 보유합니다.

요즘 북한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북한의 주민에 대해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

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 수반이 있는 정상 국가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제 미국 및 중국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북한은 이런 상황을 바랐고 획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해준 것은 다소 모순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국가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이 대화를 나누고 일종의 협정을 맺거나, 평화 조약을 대가로 비핵화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란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협정을 북한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다소 취약해진 듯합니다. “취약”해졌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경제 모델도 다소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생 기업과 스타트업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학도 질적으로 크게 진보하지 못했고, 여전히 바깥세상에 대해 폐쇄적입니다.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수를 많이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각종 정치적 갈등과 이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실적이나 과실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체계적으로 감옥에 가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반쯤 농담으로 사공 일 이사장에게 헌법이 이미 “모든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간다”고 개정된 셈이니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독일의 “하르츠위원회(Hartz Commission)”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취약성은 무엇인지, 교육, 혁신,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독립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현재 한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친구이자 외국인으로서 바라본 바는 그렇습니다.

QA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질서
질의 응답

Q 오늘 주제를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에 대해 잠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덩샤오핑은 시진핑이나 마오쩌둥 같은 직책은 없었지만 거의 중국 전역을 사실상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덩샤오핑이 굳이 그런 직책을 받지 않았지만 시진핑은 받았다는 것이 사실 그의 약점이 아닐까요?

A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덩샤오핑은 물론 개인사로 인해 많은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과 함께 신중국을 건설한 사람이고 국민의 분위기와 경제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역사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정당성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없습니다. 시진핑은 철저히 관료이고 관료제를 통해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정당성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야 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시진핑은 경쟁 세력이 커지는 것을 압니다. 덩샤오핑만큼 군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이나 당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모순입니다. 너무 권력이 집중된 나머지 정당성과 권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시진핑은 10년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산당과 군에서 이를 영원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Q 중국의 약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약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밑바닥, 즉 중·하층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소득불평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하층이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은 불평등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무장을 해야 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진실에 대한 인식에 진실이 있는 법입니다. 소득불평등은 통계가 다소 편향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실제 소득을 평가할 때 2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TV, 에어컨 등과 같이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누릴 수 있는 재화지만 통계에는 불평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정치적, 이념적 논쟁입니다. 미국인이 20년 전보다 못 산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재의 미국인은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재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정량

적으로만 비교한다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상류층보다 중산층의 임금 인상 폭이 적습니다. 미국은 소득불평등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아직은 동질적인 사회입니다.

다만, 미국에는 “슈퍼” 부유층이라는 계층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산층 사회이고 중산층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서 상당히 잘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를 긁어모으는 슈퍼 부유층이 생겼습니다. 중국인, 러시아인, 브라질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뉴욕의 투자기금에 자금을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슈퍼 부유층이 불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이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피케티(Piketty)식 분석에는 반대합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폭력은 존재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은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력의 정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의 대도시는 범죄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은 학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학생과 교사를 죽이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폭력이 줄었지만 언론매체를 통한 노출이 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나 국내에서 슈퍼 부유층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세제 개혁으로 슈퍼 부유층의 자산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개인이 원하는 바입니다. 트럼프가 지나간 이후에는 아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Q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취약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논지를 조금 더 확장하면 10-15년 이내에 중국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될까요? 시진핑이 이런 취약점을 안고 인민과 그 주변의 반대파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한국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국가와 전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0년은 긴 시간입니다. 중국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의 감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현재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인들이 현재의 상황에 불만이 있더라도 중국에서 공산당의 진정한 정당성은 사회의 평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현재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중국은 1세기에 걸친 내전과 외세의 침입 그리고 식민화를 경험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20세기는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공산혁명, 문화혁명 등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공산당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평화와 평안이 더욱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물러난 뒤에도 체제가 지속되고, 누구도 중국의 사회를 다시 붕괴시킬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Q 국가가 점점 더 안정되고 부유해지면 정치 체제도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선거 절차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에도 그런 변화가 찾아올까요?

A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 자유선거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유권자는 농부입니다. 중국의 모든 경제정책은 농업 부문이 아니라 도시와 산업 발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공산당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도시의 부유층들은 지금의 체제를 좋아합니다. 선거가 도입되면 농업 인구에 도시 인구가 밀리기 때문에 선거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도시에 의존하고, 도시끼리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모순적 이유이자, 조만간 중국에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시골에서 지역 선거를 치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평론한 바도 있습니다. 공산당은 마을에서 자유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공산당의 참패였습니다. 공산당 리더들은 이 지역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Q

첫째, 시진핑 주석은 이른바 중국굴기에서 벗어나 중국몽(China Dream)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지금의 공산주의 일당 체제에서 벗어나 대중민주주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진핑의 중국몽을 달성하려면 현재의 일당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40-50여 년이 경과하면 중국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춘 인구대국인 인도처럼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자 시진핑은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서 ‘규범 수립자(rule setter)’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의 리더들은 중국이 자유질서와 세계 무역 질서의 룰 세터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시진핑의 발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으로 큰 분열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중국이 더욱 개방적인 민주주의로 정치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1990년 이후에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이 도래하였고 소련에서 나온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전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아랍혁명(Arab Revolution)에서도

아랍의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가 대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뿌리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뿌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환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 길면 수백 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그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지금 처럼 사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더욱 다양하고, 반대 의견이 존중을 받습니다. 민주주의로의 과정은 매우 지난합니다. 한국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 끝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머지않았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는 그 기간이 수년, 수십 년, 나아가서는 수백 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쌓기 위해서는 지적인 뿌리와 사회적 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중국에서 그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독재에 종말이 오고 누구나 정보에 입각해서

자신의 정치 단체를 창설하는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위주의적 정권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낙관적인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십시오. 정책이 있기는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했지만 이들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재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란과의 협정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나쁜 협정이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온 지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협정을 깨지 않았습니다. 북한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로켓맨(rocket man, 김정은)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견제와 균형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정의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말했듯이 대통령은 “설득할 수 있는 힘(pulpit power)”입니다.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을 설득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고 재계와 군에서 그 말을 따르지 않는

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두 관세를 보십시오. 중국에서 “이제 아이오와에서 대두를 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절대 안 됩니다! 중국과 자유무역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대두를 팔아야 하니까 중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제한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민자 수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싶다면 해당 도시의 경찰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를 거절하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컬어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민자 보호 도시가 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리 싫어도 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1789년에 제정된 헌법은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국부들은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의회, 상원, 그리고 대법원이 그를 저지할 수 있습니

다.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평화를 대가로 한반도의 중립화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도 없고, 국가적 논의도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입장으로서는 저는 한국이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현대적이고 다소 평화로운 국가입니다. 한국인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현재의 상태는 지금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경제 전략, 고용, 중국, 일본 및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도 야당도 대중이 논의할 수 있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전략이 없는 듯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상황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저는 바깥에서 관찰하는 한국의 친구로서 거대한 경제적, 글로벌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없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한국이 심각하게 분열된 것도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가 극도로 격화되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Q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해서 지금의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적인 자유시장 체제하의 통일한국이 보고 싶습니다. 약 10년 전에 많은 한국인이 이런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그 꿈이 멀어진 듯합니다. 10년 이내에 민주주의적인 자유시장 체제하의 통일한국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역사가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당시를 기억하는데 3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벌써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지” 물었습니다. 저는 “통일은 복잡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절박하게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훨씬 쉬웠습니다. 아직 가족 간의 연결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어떤 정서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매우 멀어져서 더는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더욱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30년 전보다 가족적 동기는 물론이고 경제적 동기도 약해졌습니다. 남한 측에서는 통일을 절실히 바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가 중립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장기적 목표입니다. 중국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장기적 목표입니다.

일본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근에 강한 한국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통일입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상태에 만족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독재 체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야 합니다. 여기서 10년이 지나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경제 교류, 국경 개방, 합작투자가 확대되어 북한이 중국 모델과 유사한 경제 개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최선인 듯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독립을 위해 핵무장을 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폭탄을 터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폭파할 생각은 없습니다. 폭탄을 사용하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략을 배우면 핵무장의 역할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평화 조약, 경제 교류 또는 합작투자를 대가로 이란처럼 모종의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하더라도 이란처럼 하룻밤 사이에 핵 프로그램을 다

시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 조건, 인정, 평화조약, 합작투자, 돈 등에서 어떤 이익을 얼마나 얻을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대대적으로 민주화되거나 개방 또는 자유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북한 주민을 생각할 강력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협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북한, 누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의제에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잊은 과묵한 협정대로라면 북한 체제가 강화될 뿐, 더욱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혁명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Q 트럼프가 사라지더라도 미국의 보호주의가 남게 될까요? 트럼프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일부 계층의 좌절을 나타냅니다. 미국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세계를 지배한 미국과 영국이 시스템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가 얼마나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에는 훌륭한 리더가 계신 듯합니다. 유럽은 우파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시장 개혁을 잘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프랑스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곧 고립주의입니다. 때로 대중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적인 리더가 나타나 “우리는 다른

곳과 관계가 없으며” “우리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호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념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의 수입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비자가 세탁기 가격이 두 배로 뚝 떨어졌을 발견하고 “이것은 싫으니 예전 모델을 원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선전입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환은 양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교환은 캐나다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직접 수출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하게 됩니다. 이때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 보호무역주의는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든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완전히 무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뒤를 잇는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에게 손실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중국이 미국의 예산적자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역 손실과 불균형을 통해 중국이 미 달러화를 가지고 미국채 매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고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 대통령은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훌륭하지만 모든 프랑스인들이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프랑스인들도 다른 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은 누구도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노동법을 좋아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일하지도 해고되지도 않고 평생을 보낼 수 있는 거대한 관료주의적 체제를 사랑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그는 이런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있지만 아주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반발과 파업이 일어납니다. 아직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매우 매력적인 젊은 사람이지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하지만 실행은 어중간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행동한다면 100%의 적대감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일을 해도 100% 적대감이 돌아오지만 적어도 그 적대감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떻게 통치하고 대중을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대감에 맞설 것인지를 사이에서 아직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최고의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마크

통 대통령이 있어서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행복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대통령일 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제군주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의회, 언론, 노동조합 그리고 반대파를 상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매우 힘든 직업입니다. 민주주의의 묘미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명의 하버드대 정치학자가 민주주의의 사망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나 붕괴와 같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적이고 선거에 기반한 행위를 통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A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립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불과 1세기 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국의 주권이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강합니다. 프랑스에서 주권이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중세부터 주권국가였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는 아직 아닙니

다. 그래서 여전히 이웃국가에 위협을 느낍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에 위협을 느낍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에 위협을 느낍니다. 정치에서는 주권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세를 보입니다.

둘째, 폴란드와 헝가리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도 일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파시스트 국가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두 나라는 1990년에야 선거를 치르고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대만에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는 매우 다르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와 폴란드가 저지르는 많은 실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두 나라의 사례는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전염의 위협은 없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유사한 경험이 없습니다. 문제는 유럽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폴란드에서는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주로 경제 성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성장은 전적으로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과 인프라 및 공항 건설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헝가리나 폴란드를 가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 납세자의 돈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조금을 중단하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서히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전히 도와야 할까요? 헝가리와 폴란드가 법질서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의 리더들은 천천히 신중하게 두고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Guy Sorman

Guy Sorman is a French professor, columnist, author and public intellectual in economics and philosophy. He has written approximately twenty books that promote the ideals of creativity and modern capitalism. His views are close to classical liberalism. He has also held several public offices, including advisor to the prime minister of France (1995-1997), Member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deputy mayor of Boulogne (since 1995) near Paris, and recently as Chairman of “Greater Paris West” Economics and Social Council. Sorman taught economics at the 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s from 1970 to 2000 and at foreign universities. In 1985,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¹

Guy Sorman

Columnist and Public Intellectual
in Economics and Philosophy

When you are in the situation like this which is evolving very rapidly, you tend to lose what the big picture is. After all, history is determined by trends which are connected to the strength of the nation. These days there has been much talk about China replacing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ing power. I want to elaborate on this and tell you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I do not agree with this vision. Still today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superpower.

Let's start with China. It is not to diminish the successes of China for the past 30-40 years,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China is still a nation in transition. It is not yet a global economic power for many reasons.

First of all, domestic poverty in China is huge. We must not have the illusion that this is a developed country. Yes, it is a powerful country. It is important from an economic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Mr. Guy Sorman, a globally renowned French columnist and public intellectual,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April 17, 2018.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perspective and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a powerful country and a developed country.

We have the case with the Soviet Union 50 years ago. Everybody thought it was a very strong country but it was not. It was only a powerful country. When confronted with a difficult international situation, you need to have some economic strength in order to support some ambitious geopolitical strategy.

I think this is the case with China. It has a very ambitious geopolitical strategy but it still has neither the military capacity nor the economic capacity to support in the long run any geopolitical ambition.

I am not going to elaborate long on China's weaknesses, but size is a weakness and poverty is a weakness. Lack of homogeneity is a weakness. The economic model which is slowly transforming is still very much dependent on low wages and export of rather unsophisticated goods.

Much is being said about the success of China regarding innovation and figures are quoted, saying that there are more patents registered by China than by the United States. But when you look into details, these patents are registered only in China. Most of these patents are not original. They usually combine American, German, French and Japanese patents, tweak them, put them together and register them as new patents.

A good example of that is the speed railway in China. No doubt that the Chinese railways are the best. But if you look into the details of how they are made, they are basically a combination of patents registered in other countries. So they are very good at tweaking and synthesizing innovations which are from abroad but they are not 100 percent Chinese.

A weakness of China is that they do criticize in a very harsh way the international rules as defined and appli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1945. You can understand why a country like China is not happy about it.

I remember a conversation with a member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Beijing, saying how the Americans would react if they had a Chinese fleet on a permanent basis along the coast of California. They would not like it. It is a fact that you have the US the Seventh Fleet along the coast of China on a permanent basis. So the Chinese do resent the fact that the world order is an American order based on the rules of law which are defined by the Americans and also partly the Europeans.

Another weakness of China, which may come as a surprise, is a political regime.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 legitimacy of political regime. When President Xi Jinping gathered the three main powers in his hands for the first time since Mao Zedong, being the president of the state, chief of the military and the chief of the communist party, it made him some kind of an emperor like Mao Zedong was.

But it reveals also some kind of fragility. The very need to gather all the power in his hands shows that he doesn't trust anyone and that maybe no one should be trusted. So the regime which apparently seems stronger than ever maybe is not as strong.

The Chinese leaders see a lot of competition from provinces, from the civil society, from intellectuals, and from the private sector which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So the solidity and the legitima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are maybe not as strong as we think.

We know what the Chinese don't like about the global order a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But we don't know what they suggest. Actually, they suggest nothing. They don't propose a set of alternative rules. They don't propose a different world order which would be sustained by Chinese regulation or Chinese intervention we know they are against the current global order but we don't know what they are against for.

We know globally that they would like the US to leave this part of the world and they would like their Pacific oceans and the countries around like Korea, maybe Japan, Taiwan, and the Philippines, and so on to be part of a zone of influence as defined by China.

As you can see in many of the strategic papers published by China, their idea of the world in the long run is that the world should be divided into two parts – the Western part

under American control and the Eastern part under Chinese control.

This is very vague because once again they don't say what rules are acceptable by all the Eastern countries. They don't say with what military because the Chinese military is still very much behind the American military.

And they say nothing about Japan as to where Japan would stand in this vision of the world. It belongs to neither the East nor the West. It does its own policy, its own military and its own independence.

So the Chinese project is still very vague and I don't think of it right now as a competition to the US model.

Of course, the United States is in trouble because of the President, Mr. Trump. But the President is only the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we can verify on a daily basis that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is extremely strong. And the President can send tweets every morning but then nothing happens. Nothing happens because he has no continuity but also because it cannot happen. There are very few decisions the President can take by himself.

As you know, he is under the control of Congress, justice and the military which are very autonomou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the day, they do what they like. And of course he is under the control of media. President Trump gets more and more irritated by the day because he has discovered that the tweet is not decision and nothing happens

after he has tweeted. The President is only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will go.

So let's not make confusion between Trump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Trump. It has been there before Trump and it will be there after Trump. Let us remind that the US is still and I think for a long time to go will be the only global economy, whether you like it or not. It is a fact, not only in quantitative terms but also in qualitative terms.

I mentioned the registered patents. If you look at what's called the "triadic registered patents" which are globally applied, the United States is far ahead in terms of innovation. By the way, the second is Japan and the third is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India are far, far behind. So it's not easy to catch up with the United States.

It's even more difficult because so many scientists flock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ir patents. Because of this attra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merican legal system, they attract patents and money from all over the world. This is a place which is not easy to be abandoned.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global economy, the major source of innovation, and the only strong soft pow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that China does not pretend to impose a Chinese model to the rest of the world. They consider the Chinese civilization to be

good for the Chinese. But they don't export norms and rules which they pretend are good to the rest of the people.

The main difference with the United States who, rightly or wrongly, consider that the rule of law, even the Constitution which has not been written for just Americans but for everybody, and also for social norms,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ey all started from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ocial media, it can be the "Me, too" movement. It all started from the United States. You cannot imagine a "Me, too" movement starting from China. It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 brings a revolution all over the world. All social and moral revolutions once again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Being a strong soft power and of course the strongest hard power, the debate is to know how ready the United States is to employ this hard power and how ready they are to intervene in Syria, North Korea, Libya, etc.

I think the answer to this question of "Will they intervene? Do they want to intervene?" can be found in its history. The very beginning, the Americans did not want to intervene from the very first President. The founding fathers like Washington and Jefferson did not want to intervene. The United State did not want to intervene until the 20th century. In World War I the United States did not want to intervene. They considered it a European affair. They didn't want to intervene in World War II because they also considered it a European affair until the day when they understood that nothing was a local affair and everything put America in danger.

If I were to summarize the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US military strategy is that they don't want to intervene until the day they understand that they have to intervene and when such realization comes, they do intervene. That has always been the case.

It is the case these days in Syria. Trump said, "We are leaving. We have nothing to do here." And he did not. When he was elected, he said, "Korea and Japan should defend themselves alone. They don't need the United States." And these days he has discovered that he has no choice. Again the same story which is "not to intervene but intervene."

Another significant feature is continuity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It did not all start with Trump. You must remember that Obama was the first to bring the US troops and say, "From now on, we shall lead from behind." And it didn't work because he intervened, not from behind but very actively in Afghanistan, Syria and Iraq.

There is an illusion of "isolationism" which is very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ality is an interventionism.

I should say a word about Europe. Europe is a major economic actor and a minor military actor. It is not because the military is weak. The British and the French military are quite strong. But there is an agreement supported by the public opinion in both countries. After the de-colonization war, it was decided that enough is enough and that interventions are made only when the national interests are

threatened.

This is why there was an intervention these days in Syria coordinated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re is a world treaty on chemical weapons not respected and also because the United Kingdom is directly impacted by the Syrian war because of the hundreds and thousands of refugees we received from this country. So there was a direct interest in acting in Syria to try to stop the flux of refugees.

As a global and international actor, Europe had the means to intervene but really doesn't want to. All our energy is concentrated in building a strong, solid, unified common market and also in soft power. One of the main reasons to intervene in Syria is to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But it will not go far there.

What about the other actors? We know a lot about North Korea. Just to bring it to a very simple definition, it is a military dictatorship based on exploiting its own people. This is a very simple definition but we forget to think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victims. In all the discussions about Korea we speak, talk and negotiate as if there were no North Korean people. Nobody seems very interested in the destiny of these people who are treated like slaves.

North Korea's ambition is not to threaten anyone. They are not going to start a war they will lose. Their ambition is to preserve the status quo. The North Koreans love the status quo and they love the regime the way it is. They want to be

recognized as a truly independent country.

As we know, the main purpose of nuclear armament is not to attack anyone but to protect itself. All the countries which have nuclear armament and a nuclear bomb, except 1945, never used them to attack anyone. The bomb is to preserve the status quo. This is why Israel has a bomb and so do India, Pakistan and Iran to protect the very existence of their regime.

North Korea has been quite successful these days because everybody has forgotten about the North Korean people.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s not raised by anyone. In a way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much reinforced. They are considered now like a normal country and a normal president with whom you can have a normal discussion.

So their strategy, I must say, has been extraordinarily successful so far and they are talking now equal to equal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is always what they wanted to do. This is what they have obtained so far. So it's a bit of a paradox that Trump in a way succeeded in reinforcing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 It means he will not be able to destroy North Korea. You do not destroy a country with which you have a conversation. You can have an end-to-end conversation and find some sort of a deal, maybe some sort of denuclearization in exchange for a peace treaty. There are many scenarios. Something comparable to Iran would be possible for North Korea.

On South Korea, it seems to me rather fragile these days. When I mean “fragile,” I mean big changes have to be implemented in the current situation. Social changes because you have increasing unemployment among youth. Something is not working any more in the economic model in South Korea.

Growth is slowing down, which means the economic model should also be a little bit revised, perhaps. The number of new companies and startups is very small, indicating a lack of dynamism in the economy and the South Korean society.

Universities are not making any tremendous qualitative progress. They still remain not very open to the rest of the world. They don’t attract so many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professors.

The civil society has been heavily disrupted by all the political conflicts, judgments against former presidents. I have no opinion about what this former president did or didn’t do but Korea is the only country where former presidents systematically go to jail when they are not president anymore. So I was saying half jokingly to Il SaKong that the Constitution was already revised. There is an implicit article saying “All former presidents will go to jail.” So there is no need to reform the Constitution anymore.

I think there should be a consensus in South Korea. There should be at least some good people working together like

what had been done in Germany with so-called the “Hartz Commission.” The fragilities include: What is fragile in South Korea? How are we going to confront the new situation in education, in innovation, and in geopolitics? How are we going to exist as an independent and democratic country in the region vis-a-vis China, Japan, US and North Korea? How are we prepared to confront the change in South Korea right now?

I may be wrong but this is what I feel as a foreign observer and as a friend of South Korea.



QA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Questions and Answers

Q Considering the title of today's subject matter, you didn't speak too much about Xi Jinping except just one brief moment. Deng Xiaoping didn't have the titles like Xi Jinping or Mao Zedong. But he actually had more effective control of almost all areas. Does the fact that Xi Jinping has grabbed all those titles that Deng Xiaoping did not bother in effect mean weakness on his part?

A I totally agree with you. Deng Xiaoping of course had a very significant legitimacy because of his personal history. He w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New China along with Mao Zedong and he understood the mood of the people and the necessity to turn around the economy.

Xi Jinping has no historical legitimacy. His father had but he doesn't. He's a strict bureaucrat and he made his career through bureaucracy. You're right about the fact that he had to accumulate all the power as compensation to his very fragile legitimacy. He sees competitive powers growing. He is not as sure to control military as Deng Xiaoping did. He's not that sure to control provinces. He's not that sure to control the party.

This is a contradiction of Xi Jinping. Too many powers show that maybe there is a lack of legitimacy and a lack of power. As you know, he has decided to erase the 10-year limit. We are not sure if the Communist party and military will accept that forever.

Q You mentioned the weaknesses of China but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the weaknesses of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superpower in a position to project its power all over the world.

But the American society seems to be collapsing in the bottom, i.e., lower-middle class. Income inequality in the US, as you know, is very serious. I think the election of Trump was due to this income inequality, especially the lower middle class Americans who are really frustrated. Trump's tax reform is not going to reduce inequality but it may even be increasing inequality further. And I wonder if there is any normal country in the world where teachers have to be armed to protect children at school. That society must be deteriorating.

How do you evaluate these situations and how can these two gel together?

A There are the truths in the perception of truth. Regarding income inequality, it is not that true because the statistics are a bit biased. For example, if you are to evaluate the actual income of people, you don't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value of many things is declining – cars, TVs, air conditioners, and not to mention the Internet which did not exist 20 years ago. It is available to all Americans but it doesn't appear in the statistics on inequality.

I think this debate on income inequality is by and large

a political debate and an ideological debate. To say that Americans are living less well today than 20 years ago is just not true. Americans today have an access to better healthcare and have an access to many things which didn't exist before. If you look only at the quantitative level of wage compared to other wages, you see a general increase but the increase of the middle class is less than that of the upper class. I wouldn't say that there is an income inequality. It's still a very homogeneous society.


What is new in the United States is the emergence of a new class which we call the "super" wealthy class, the super rich. We should look at the two phenomena differently. Basically, America is a middle class society and this middle class society is living fairly well because of access to services which didn't exist before and are very cheap.

Now you have this super rich class which gathers wealth from finance from all over the world. The Chinese, Russians, Brazilians and everybody trust its money to the New York-based investment funds. This builds the super class and this raises irritation exploited by Bernie Sanders during the last election. But I totally disagree with this kind of Piketty's analysis of comparing things that cannot be compared, for example.

You have a level of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always there. In fact, the dramatic events take place on a regular basis in America mostly in schools. But the level of

violence is actually declining. If you take big cities like New York, Chicago and Los Angeles, crime has nearly disappeared from big cities. What you have in America is a major problem at the school level where there are crazy young kids who can freely use arms and kill other students and teachers. This is a major problem. But once again, you cannot say that the American society is becoming more violent because it is less violence, but with better media coverage.

Now what is true and I would agree with you is nothing is done to cope with these problems. Nothing is done to cope with the violence in schools. Nothing is done to try to contain the influence of the super rich on the country. The tax reform increases the wealth of the super rich people. But this has to do, I think, with the personal agenda of Donald Trump. And probably after his agenda, America will have a fellow Democratic candidate which will go into the other direction.

 If I may, I would like to go back to the point you made about the fragility of China. If you press that point a little bit further, does that mean that perhaps in 10 or 15 years we will see a major upheaval in China? With that fragility, if Xi Jinping continues to put pressure on the people and all those oppositions around him, I would expect that from Korea's experience in 10 or 15 years' time, there will be a very major challenge which can disrupt not only China but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orld. So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about that point.

A Ten years is a long time. Since I have been working on China for many years, my bet is that the status quo will prevail for a long time. It will prevail for a long time even if the people are not happy with it because the tru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regime is based on civil peace in China.

You know China just went through a century of civil war, invasion and colonization. The 20th century was tragic for China. You had the Communist Revolution, the Cultural Revolution, and so on and so forth. And people remember that.


I think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is based on economic growth. But it's based even more on civil peace and civil tranquility. This is why even after Xi Jinping is replaced, I think the regime will remain stable and that nobody wants to take the risk of having the civil society in China disrupted again.

Q As the country is getting more stable and richer, the political system also changes, so the country tends to take an election process to select the leader. Would it happen in China in sooner future?

A Well, I don't think so. If there were free elections in China, most of the people are still farmers. All the economic policies in China have been to develop cities and industries, not the agricultural sector. So the farmers are

not happy with the Communist party. The city bourgeoisies like the system as it is and they don't want to have elections because if they have elections, the cities would be beaten by the agricultural part of China. The Communist party is relying mostly on cities and there is an agreement within the cities not to have elections. I think that's one of the paradoxical reasons of the stability of the dictatorship in China and the reason why we are not ready to see elections in China.

There was an attempt of local elections some years ago in villages. I commented on it. The Communist party wanted to check how it would be like if they have a free election in villages as a laboratory case. It was a disaster for the Communist party. The leaders of the Communist party were always defeated at these local elections. So they stopped the experiment.

 First, Xi Jinping declared that he will pursue the China Dream, jumping from the so-called peaceful rise of China. In the long run, do you think China will ever adopt a popular democracy departing from the current communist single party system? In order to achieve Xi Jinping's China Dream, my view is that China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current single party system. But in the long run, maybe 40-50 years later, China would become like India which is a very populous country with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hen president Trump adopted the "America First" trade

protectionism, Xi Jinping declared in the Davos Forum that China will carry on a flag as a rule setter for global liberal trading system. How did the European leaders including President Macron react to Xi Jinping's remarks, claiming that China wishes to become a rule setter of the liberal order and the global trading order?

Korea is in the middl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Koreans are now deeply divided in a sense – one camp supporting a continental power regime and the other one supporting an ocean-bound regime. What recommendations would you give to Korea to remain a robust democratic market economic system between the continental power camp and the ocean-bound camp?

A: Regarding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towards a more open democracy, I look at what's been happening in the world since 1990.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Soviet Union, many observers – I am afraid myself included – saw that it was really the spring of democracy and that all the countries which emerged from the Soviet Union would turn to democracy. We had the so-called Arab revolution where we thought the Arab dictatorship would be replaced with democracy. But it happened nowhere.

It has been a big disappointment. Why did it happen nowhere? Perhaps, it is because democracy needs very ancient historical roots. If you look at the Western democracies, they go back centuries ago. Their roots are very

ancient. It's a very long process to transit from dictatorship to a full-fledged democracy. It takes years, maybe centuries.

Look at South Korea. You are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I wouldn't say South Korea is a full-fledged democracy. In a full-fledged democracy, former Presidents don't go to jail and the society is not divided as it is right now. You have more diversity in the media. Opposition is more respected. It's a very long process. South Korea is on this road but you are not yet at the end of the road, but far from it.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former communist states like China, it takes years, decades and even centuries. You need to have intellectual roots and social roots to build a democracy. I am not so optimistic, even in 10 or 20 years, that we can see an evolution in China.

You will remember when the Internet and the social media started, people said that this would be the end of dictatorship and everybody would be well-informed, be able to create his/her own political group and so on. But it did not happen. On the contrary, the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ave been used by authoritarian regimes to enforce their authority. Things went in the other direction than the optimistic prophets were predicting.

You look at the Trump policy; is there a policy? We don't know. After one full year, we still don't know. We have a lot of talks and declarations but they are very contradictory. If you

look a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he said during the campaign that he would leave it. Now he wants to be back.

What about the Iranian agreement? He said that it was a very bad agreement but America is still within the agreement after 18 months he said so. He said he would never negotiate with North Korea; now he's ready to negotiate with the rocket man, and so on and so forth. So it's extremely difficult to define his policy.

I think it's even more difficult because, as I said before, America is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he President is only the President. The President is a "pulpit power" as what Theodore Roosevelt called. He has a power to explain and to convince the people. If the people are not convinced, if the business people do not follow, and if the military doesn't follow, nothing happens.

Look at the taxes on soybeans. The Chinese said, "OK, we don't buy soybeans from Iowa anymore." The Iowans went to Trump and said, "No way! We want free trade with China." Trump said, "OK, no taxes on China because you need to sell your soybeans." So it's very difficult to grasp what the sense is of the America First policy.

The same applies to immigration.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limiting immigration. You may be for it or against it. But the number of immigrants is still the same.

What is interesting with the US Constitution is if you want to arrest an illegal immigrant in New York or in Los Angeles, you must call to the local police. But if the mayor of the city rejects it, they cannot arrest the illegal immigrant. They call it “sanctuary cities.” Trump went to the court and said, “I don’t like the sanctuary cities.” The court said, “You don’t like it but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Illegal immigrants are not arrested.

To summarize, the Constitution written in 1789 is exactly meant for Mr. Trump. The founding fathers had in their minds, “What will happen if an authoritarian person becomes the President? How do we limit his power?” There they had this fantastic notion of checks and balances. The Congress, the Senate and the Supreme Court can stop the President if he becomes unpredictable. This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What about North Korea? Some people in South Korea, although a small minority, are ready to accept the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xchange for peace. It will be the end of democracy in South Korea. But many people don’t think that far. I don’t think there is a consensus. I even don’t see a national debate on this.

From an outside observer, I think the South Koreans love the status quo. After all, the situation is not that bad here. South Korea is a modern and rather peaceful country with a growing economy. What South Koreans do not see is that maybe the status quo cannot be maintained as it is and

that some decision has to be made regarding the economic strategy, employment, and the relationships with China, Japan and North Korea. It seems that neither the President nor the opposition has a very clear and strong strategy which is debated by the people. The people live in a bubble in South Korea, hoping that things will go as it is ever.

I am a bit worried as a foreign observer and as a friend of Korea that there is no more debate and consensus building on what is to be done if there is a major economic and international crisis. I am also very worried about the division within the country that is very severe. The President is very popular right now. But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n negatively affect the country. If any one of them goes wro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opposition could become extremely violent and undemocratic. But of course, I may be wrong.



You talked about the status quo of South Korea and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maintain the status quo of the Kim Jong Un regime by developing its nuclear bomb. But as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see a united Korea under a democratic, free market regime. About 10 years ago, many South Koreans were very hopeful of this kind of united Korea. But it seems remote now beca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o you see in 10 years a united Korea under democracy and free market?



I think the pace of history is very slow actually. I remember the very first time I was in South Korea. That was 30 years ago. Then people already asked me about reunification, saying “Do you see reunification in 10 years?” I said, “No. It’s a very complicated process and a very slow process.”

To tell the truth, nobody wants reunification that much. Thirty years ago it was easier. Thirty years ago there were still many family connections. There was a kind of sentiment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t is not the case anymore. Even if you have family in North Korea, it’s very remote and it is not family anymore. It is becoming a different country. This makes reunification more difficult and more unpredictable.

And South Korea has become so much richer than North Korea. The economic incentive on top of the family incentive is even less than it was thirty years ago. On the South Korean side, you cannot say there is a strong desire for reunification. In China, the Chinese love the situation as it is now. The only hope for China is they would obtain the neutralization of the whole peninsula. But this is a very long-term goal. They have that in their mind but they know it’s a very long-term goal.

Japan doesn’t want reunification. They don’t want a strong Korea at their door. Who is for reunification after all? Nobody! North Koreans are happy with where they are. If there were reunification, they would disappear as a dictatorship and have much to lose. So if I were to make a bet

even 10 years from now, I think the status quo would still be the same.

What you can hope for is a smoother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more economic exchanges, more open border, joint ventures and maybe North Korea taking the road toward economic reforms similar to the Chinese model. I think that's the best bet that we can do right now.

Once again, returning to the issue of nuclear armament of North Korea,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North Koreans want the nuclear armament to remain independent. They don't want to bomb anyone. They don't want to bomb South Korea. They don't want to bomb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know that if they do, they would disappear overnight.

When we learn about global strategy, we learn that the role of nuclear armament is conservative. It is to keep things where they are. So the North Koreans like the Iranians could accept some sort of denuclearization in exchange for peace treaty, economic exchange or joint venture, for example. But denuclearization doesn't stop you to restart the nuclear program overnight like they did in Iran. I think we are going for an agreement and make sure what we get for that and how much in economic terms, recognition, peace treaty, joint venture, money and all. But they could restart the nuclear program any day. This is what I think. Regretfully, I do not forecast any major democratization, opening or liberation of North Korea.

As I said before, nobody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North Korean people. They are not part of the negotiation. Nobody mentions them, neither the Americans nor even the South Koreans. President Moon said that the human rights will not be on the agenda. With this taciturn agreement to forget about these people we will go into this direction which will reinforce the North Korean regime but certainly do not favor a revolution toward a more free society.

Q Do you think the American protectionism will survive Trump even if Trump disappears? The Trump phenomenon is not an accident but an expression of frustration of some segment of Americans. America is losing confidence. The US and the UK which ruled the world for the last two centuries are losing confidence in the system. How enduring do you think the America First will be?

You seem to have a great leader in France. In Europe there is a tendency to move to the right. But France is staying on the right course and President Macron seems to be doing the right things with the labor market reform. Could you tell us what is going on in France?

A Protectionism in the United States is isolationism. From time to time you have some demagogues and populous leaders advocating isolationism saying tha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advocating protectionism saying that “We must protect our market.”

But it doesn't go for long because it makes no sense. It makes no sense because protectionism cannot be enforced. Protectionism is only based on the ignorance of the people.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wants to stop importing the Korean washing machines. Then suddenly the consumers discover the washing machine will cost twice as much, so they are saying, "No, we don't like that. We want the old model."

Protectionism is basically propaganda. First, it doesn't apply and it cannot. Exchanges go both ways. Exchanges can go through Canada, for example. If Canada exports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you export to Canada and to Mexico. From there, there is free trade betwee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So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t doesn't work.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t doesn't work, either. It's also based on total ignorance. Trump is talking about protectionism but nothing happens. The successor may or may not talk about protectionism but nothing will happen.

Also, the big mistake made by Trump who is not well-trained in economics is saying that "We lose too much money in trade with China." Without losing money to China, how would China finance the US budget deficit? It is through trade losses and imbalances that China can reinvest with the US dollars in buying Treasury bonds. So, this is totally absurd and it won't go on long.

What about France? We have a fairly good President with fairly good ideas which are not all approved by the French

people. He is not popular because the French people like the status quo like everyone else in other countries. The French people love their labor law because nobody could be fired. They love the huge bureaucratic system where you spend your life without working and without being fired.

Macron understands perfectly well that this is not the way to grow. He's dismantling this kind of bureaucracies but he's doing it very slowly, in my mind, too slowly. It brings a lot of reactions and strikes. We don't know yet what the end of the story will be. It's really too early to know.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what Macron, a very attractive young person, says and what he does. He says the right things but he does things half way, which I think is not good. If you do things half way, you have 100 percent of hostility. If you do things the wrong way, you also have 100 percent of hostility but at least you get it for real. He has not yet found the right balance between how to govern, how to convince the people and how to confront the hostility.

For sure, it is the best President we have had since a long time ago. We are much happier than the other countries in Europe to have Macron as President. But once again, he is only the President. We tend to forget that in democracy the President is only the President. They are neither despots nor kings. They have to deal with the parliament, media, trade unions, and opposition. It's a very tough job to be a President. The beauty of democracy is that nothing works. But we in

France are in the right direction.

Q Why is it that what's happening in Poland and Hungary is happening? There is a book written by two Harvard political scientists about how democracy is dying. The point was in the old days democracy died because of sudden movements like coup d'état or a collapse. But democracy can die by truly democratic, electoral means. Should Europe or the rest of the world be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Hungary or Poland can be an example of what can be contagious?

A Once again, it'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situation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Hungary and Poland, you have to look at the Hungarian and Polish situation. These countries have been independent since not long ago. They have been really independent since World War I. They have been independent for only a century.

They still have a strong sense that their sovereignty is not fully recognized. The notion of sovereignty in France means nothing. France has been a sovereign country since the Middle Ages, but Hungary and Poland are not yet. They still feel threatened by the neighbors. In Poland they feel threatened by Germany and Russia. In Hungary they feel threatened by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strong case in politics to affirm their sovereignty.

Second, these countries are not only new democracies but they have very little democratic experience. They were fascist countries after World War I and they were communist countries after World War II. They have been democratic countries with elections and competing parties only since 1990. As I said before, you do not build a democratic culture in one generation.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n Europe. They are in the learning process. You have to forgive them for their many mistakes for doing that.

The risk of contagion is non-existent because they are very specific. You don't have similar experiences in the rest of Europe. The question is what Europe should do, which is not an easy question to answer. The success of Viktor Orban in Hungary and Jarosław Kaczyński in Poland is largely due to economic growth. But their economic growth is totally financed by the European Union, building infrastructure, airports, etc. When you go to Hungary or Poland, you will find everything is new. It has been built with taxpayers' money from the rest of Europe.

So what should we do? Should we stop the subsidies and say "You don't respect the rule of law"? Or should we consider that they are in a historical process which goes slow and still be helping them to get to a true democracy? Right now, the decision which has been taken by the European leaders is to go slowly and to be careful, although they are breaking the rule of law and are not respecting the treaty. But

we understand it is a slow process. By the way, I think the opposition will win the election anyway.



세계경제연구원 출간물 및
특별강연 시리즈 목록

IGE Publications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Title	Author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Title	Author
94-01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Title	Author
95-01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95-02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3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4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5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6	US Trade Tension with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7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Japan's Perspective	Hisao Kanamori

1996

	Title	Author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4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05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1997

	Title	Author
97-01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Wendy Dobson
97-02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 Three Crisis and How We Dealt with Them	William Perry
97-03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1998

	Title	Author
98-01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8-02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8-03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8-04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8-05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1999

	Title	Author
99-01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Marcus Noland
99-02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 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ourtis

	Title	Author
99-03	Prosp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Asian Economies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2000

	Title	Author
00-01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00-02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Global Trend in Financial Supervision	YongKeun Lee
00-04	Asia Grows, Japan Slows: Prospects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urtis
00-05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6	Prospects for Millen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InBeom Choi
00-07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Avoiding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00-11	Korea and the US: Partners in Prosperity and Security	Stephen W. Bosworth
00-12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and Financ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Youngkeun Lee
00-14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2001

	Title	Author
01-01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urtis
01-02	The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Title	Author
01-03	Overcoming 3Cs	Jeffrey D. Jones
01-04	High Tech, The Consequences for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The Status of Korea's Restructuring: An Outlook over the Next 10 Years	Dominic Barton
01-07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nald McKinnon
01-08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	Pierre Jacquet

2002

	Title	Author
02-01	Managing Capital Inflows: The Chilean Experience	Carlos Massad
02-02	Globalization and Korea: Opportunities and Backlash and Challenges	Martin Wolf
02-03	The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02-04	US Global Recovery: For Real? -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	Francis Fukuyama
02-07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8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d Asia	Kenneth S. Courtis
02-09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An Outlook for the World Economy	Marcus Noland
02-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11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12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02-13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02-14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5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Title	Author
03-01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Korea in the OECD Family	Donald Johnston
03-03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The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6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03-07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2004

	Title	Author
04-01	General Outlook on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5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04-06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US Trade Policy after the 2004 US Election	Peter F. Cowhey
05-02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Dominic Barton
05-03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Market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4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5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6	Mutual Interdependence: Asia and the World Economy	Anne O. Krueger

	Title	Author
05-07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Global Economy	Wendy Dobson
05-08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sia and Asia-Pacific	Robert Scollay
05-09	Moody's Perspective on Korea's Ratings	Thomas Byrne

2006

	Title	Author
06-01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06-02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3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4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5	Japan's Economic Recovery: Implications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6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obert F. Bruner
06-07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8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09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and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Whither China? -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Title	Author
07-01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7-02	Germany: Understanding for the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7-03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4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7-05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7-06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Title	Author
07-07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07-08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07-10	Moving Forward on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11	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12	-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 Guy Sorman - Tarun Das

2008

	Title	Author
08-01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08-02	The US "Risk" to Asia and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3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s	Atsushi Saito
08-06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08-0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Title	Author
09-01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09-02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09-04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6	-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Obama, Can It Work? -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Title	Author
10-01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10-02	Aftermath of the 'Crise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10-03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4	-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 Asia in the Global Economy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Title	Author
11-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1-02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3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Title	Author
11-04	Reshaping the Global Financial Landscape: An Asian Perspecti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1-05	-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 Europe's Financial Woes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Title	Author
12-01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 Nam Pyo Suh - Hans Martens
12-03	-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Title	Author
13-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3-02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 David Hale - Hugh Patrick/ Gerald Curtis

	Title	Author
13-05	-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 Abenomics, Future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6	-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13-07	- The Outlook for Japan under Abenomics and Abenationalism - After the Pax Americana (Korea-China-Jap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 Whither to?)	- David Asher - David Filling

2014

	Title	Author
14-01	U.S. and Global Economics-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elstand Economy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The Eurozone Economy: Out of the Doldrums? - The Global Economy 2014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5	-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 From BRICs to America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Chin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 Bob Davis
	-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 Anoop Singh
	- China's New Economic Strategies and the Korea-China FTA	- Zhang Yunling

2015

	Title	Author
15-01	-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 Allen Sinai
15-02	-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 Jeroen Dijsselbloem
	-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 Mark W. Lippert
	-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 Peter Hartz
15-03	- What Makes China Grow?	- Lawrence Lau
	-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 Guy Sorman

	Title	Author
15-04	-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 H.E. Doris Leuthard - David L. Asher
15-05	-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 Germany's Industry 4.0: Harn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 Huang Yiping - Matthias Machnig
15-06	-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 Dominic Barton - Sung-won Sohn
15-07	-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 Thomas Byrne - Huang Haizhou

2016

	Title	Author
16-01	-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 Allen Sinai
16-02	-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 Hung Tran - Anne Krueger
16-03	-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 Martin Feldstein - Gerald Curtis
16-04	-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Charles Dallara - Mark Lippert

2017

	Title	Author
17-01	-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 Allen Sinai
17-02	-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 Martin Feldstein - Jonathan Woetzel
17-03	-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 Gerald Curtis & Hugh Paztrick - Thomas Wieser
17-04	- The Future of Work: Is This Time Different?	- Carl Benedikt Frey

	Title	Author
17-05	- The Future of Growth - The Current State of US Economy and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US FTA Revision	- Simon Baptist -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Title	Author
18-01	- Dr. Martin Feldstein's Analysis of the US and Global Economy - U.S. and Global Prospects Looking Ahead	- Martin Feldstein - Allen Sinai
18-02	- US Protectionism, China's Political Shift and Their Implications - Japan's Labor Reform and Future Korea-Japan Cooperation	- Kenneth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Charles Freeman - Guy Sorman

Proceedings and Reports

	Title	Author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Il SaKong
94-02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US Cooperation	Il SaKong/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3	Korea-US Cooperation in the New World Order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6-02	Korea-US Relations in the Globalization Era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6-04	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n a Trap and Can It Get Ou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7-02	Financial Reform in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2	Korean Unifica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for Korea-US Relationship	Il SaKong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Il SaKong/ KwangSeok Kim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Il SaKong/ KwangSeok Kim
99-01	Asian Financial Crisis: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Il SaKong/ Young Hun Koo
99-02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Korea-US Rela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Il SaKong/ Yunjong Wang
00-02	Northeast Asia Forum 2000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00-03	Proceedings of the Sixth Korea-US 21st Century Council Meeting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1	Building Constituencies for a Global Liberal Trade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EG Seoul Report)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2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3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4	IGE's 1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4-01	How to Facilitate Business Start-up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8-01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9-01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1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2	G20 Seoul Summit and Development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1	New Global Financial Regulatory Regime in the Making: Impact on Asian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2	Culture, Korean Economy and the Korean Wa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3	Asia in the New Global Financial Scen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1	Fostering Hidden Champions: Lessons from German Experienc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2	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3	The 20-Year Report of Activ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4-01	Leadership & Policy Prior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15-01	Women and Growth Potential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7-0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GE Brief+

2012

	Title	Author
12-01	Culture Industry, Service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Chong-Hyun Nam
12-02	Korea-Japan Economic Integration: Trend and Prospect	Jongyun Lee
12-03	The Eurozone Crisis and Challenges for Korea	Jung-Taik Hyun
12-04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2012: Why Is It More Critical This Time?	Il SaKong
12-05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JaeUng Lee
12-06	We Must Be Prepared for the Korean Unification	Il SaKong

2013

	Title	Author
13-0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Forward-looking Korea-Japan Relationship	Il SaKong
13-02	Financial Reform and China's Political Economy	Yoon-Je Cho

2014

	Title	Author
14-01	No Future for a Society that isn't Alarmed at Attacks against Police	Il SaKong
14-02	To Make the 3-Year Agenda for Economic Reform Successful	Il SaKong
14-03	Reinventing Korea for a Trustworthy Nation	Il SaKong
14-04	Reemergence of Chin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l SaKong

2016

	Title	Author
16-01	Korea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and Surroundings	Il SaKong

Global Economic Horizons

1994

	Title	Author
94-01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94-02	Globalism vs. Regionalism	YoungSun Lee
94-03	Prospects for the Chinese Market	Wan-soon Kim
94-04	How to Prepare for the 21st Century	Paul Kennedy
94-05	Death of Money/Post Capitalist Society	GiTaek Hong/ HanGwang Joo
94-06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Yoo Jae Won
94-07	Environment and Trade	Seong-Lin Na/ Seungjin Kim
94-08	Structural Adjustment in Japan and the Korean Economy	JongYoon Lee
94-09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nd Options for Korea	Il SaKong
94-10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Korea's Economy and it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Il SaKong
95-02	Globalization and Competition Norm of the Enterprises	Wan-soon Kim
95-03	What is Globalization?	ByungJoo Kim
95-04	Korea and the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Will the World Economy Collapse?	ChukKyo Kim
95-06	Possibility of Continuously Strong Yen and Korea's Countermeasures	Jin-Geun Park
95-07	Globalization and the Korean Economy: Boom or Bubble?	BonHo Koo
95-0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Policy Measures	Chong-Hyun Nam
95-09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Korea-Japan Relations	WonTack Hong
95-10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s and its Efficiency	JongYoon Lee
95-11	Dilemma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JaeUng Lee

	Title	Author
95-12	Overview of the Post-Liberation Korean Economy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wangSeok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Will the Era for Medium-sized Firms Be Opened?	Dong-Gil Yoo
96-03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of Korea	MooGi Bae
96-04	Global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Businesses	Cheong Ji
96-05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s in Korea	YoungCheol Park
96-06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Can It Be Compatible?	SeWon Kim
96-07	Risks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SangKee Min
96-08	Recent Economic Crisis and Policy Measures	KwangSeok Kim
96-09	Economic Development, Policy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Order	SeongSeob Lee
96-10	The Role of Government in Transition	ByeongJu Kim
96-11	New Agenda of the WTO	WanSoon Kim

1997

	Title	Author
97-01	How to Solve the Labor Law Revision?	SooGon Kim
97-02	Why a Low Economic Growth Rate is Desirable	ChukKyo Kim
97-03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JaeUng Lee
97-04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eokWoo Nam
97-05	A True Story of Company Growth: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Cheong Ji
97-06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Collective Farming	PalYong Moon
97-07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	KeSop Yun
97-08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udget Crisis	Jong-Gi Park
97-09	Korea's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a General Model of Foreign Exchange Crisis	JinGeun Park
97-10	How to Open an Era of Ventures	Dong-Gil Yoo

1998

	Title	Author
98-01	Has Korea's Economic Miracle Ended?	Chong-Hyun Nam
98-02	The Impossibility of Overcoming a Crisis without a Grand Paradigm Shift	DaeHee Song
98-03	Corporate Restructuring and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Corporations	SangWoo Nam
98-04	A Search for New Corporate Governance and Roles of Outside Directors	Yeong-gi Lee
98-05	Suggestions for Breaking the Circle of High Investments and High Savings	YeongTak Lee

1999

	Title	Author
99-01	Prospects and Agenda for Pension Reform	Jong-Ki Park
99-02	The Subway Strike and Review of Issues Regarding Full Time Unionists	Soo-Gon Kim
99-03	Financial Restructuring and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JunGyeong Park
99-04	Environmental Policy Agenda for the 21st Century	Jong-Ki Kim
99-05	How to Deal with Income Distribution Problems in Korea	KwangSeok Kim
99-06	Fallacy and Reality in Productive Social Welfare System	Kwang Choi
99-07	Toward Closer Economic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l SaKong
99-08	WTO New Round - Recent Ministerial Meeting in Seattle and its Prospect	Tae-ho Bark

2000

	Title	Author
00-01	The Prospect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Korean Economy 2000	Joon-Kyung Kim
00-02	What Happened to the Debate on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Il SaKong
00-03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Korea's Economic Future	Il SaKong
00-04	Revisit of High Cost with Low Efficiency	JongYun Lee
00-05	Is Asia's Recovery Sustainable?	Il SaKong

	Title	Author
00-06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Yoon-Je Cho
00-07	The Role of International Investors in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JaeUng Lee
00-08	US Restructuring Experience and Lessons	YeongSe Lee

2001

	Title	Author
01-01	A Perspective of Korean Industries and Strategi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DoHoon Kim
01-02	Reconsidering Working Five Days a Week	Young-bum Park

Research Reports (Global Economy Series)

1994

	Title	Author
94-01	The Task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and Policy Options for Korea	JaeWon Yoo
94-02	Current Discussions on Environment - Trade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	SeungJin Kim/ SeongRin Na
94-03	Japan's Structural Adjustments to a Strong Yen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JongYun Lee
94-04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ts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HanGwang Joo/ SeungJin Kim
95-02	Receptivity of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 Korean and Japanese Firms	JaeGyu Lee
95-03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me and Korea's Strategy	JiHong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 and its Efficiency: A Case Study of the Automobile Industry	JongYun Lee

1997

	Title	Author
97-01	Romania's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Reform Issues	GwangSeok Kim/ ByeongJi Kim/ IIDong Koh

1998

	Title	Author
98-01	Sources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Future Growth Potentials	KwangSeok Kim
98-02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eir Changes and Korea's Response	SeungJin Kim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NakGyun Choi
98-04	Intern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Korea's Strategy	JongGuk Park

2000

	Title	Author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eongSe Lee / YongSeung Jeong

2001

	Title	Author
01-01	Korea's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Their Evolution from 1961 to 1999	KwangSeok Kim
01-02	Technology Transfer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Korea	YeongSe Lee

Special Lecture Series

1993

No.	Date	Title	Speaker
93-01	Feb 1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Mar 18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93-03	Apr 9	Th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Outlook and Issues	Allen Sinai
93-04	Jun 22	Economic Outlook for the Pacific and Implications for Korea	Lawrence Krauss
93-05	Nov 4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1994

No.	Date	Title	Speaker
94-01	Jan 5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Mar 2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Mar 25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Apr 18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Jun 28	Prospects for East Europ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Freeman
94-06	Sep 6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7	Oct 18	Prospects for New Trade Order and Implications for Korea	Arthur Dunkel
94-08	Dec 15	Financial Reform for the New Economy: Evaluations and Prospects	Jaejoon Park

1995

No.	Date	Title	Speaker
95-01	Jan 26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and Future Economic Policy	JaeHyong Hong
95-02	Jan 27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No.	Date	Title	Speaker
95-03	Mar 6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4	Mar 29	Korea and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Apr 11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6	Apr 21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7	May 18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8	Jun 14	New World Trade Regime in the Post-UR Er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9	Jun 20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fter Mexico and Recent Currency Crisis	Stanley Fischer
95-10	Jul 19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New Challenges	Jagdish Bhagwati
95-11	Sep 1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Role of Korea	Hisao Kanamori
95-12	Oct 17	Russian Intelligence System: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Vadim Kirpitchenko
95-13	Oct 19	Trend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Allen Sinai
95-14	Nov 7	Current US Political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US-Korea Relations	Thomas Foley
95-15	Nov 13	APEC and the Worl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 Fred Bergsten
95-16	Nov 28	International Monetary Regime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Toyoo Gyohten
95-17	Dec 6	WTO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 Where Do We Go from Here?	Anne O. Krueger

1996

No.	Date	Title	Speaker
96-01	Jan 25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Robert Lawrence
96-02	Feb 1	Trade Policies of the New Economy	Jaeyoon Park
96-03	Feb 26	Technology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Sylvia Ostry
96-04	Mar 19	Information Era: Korea's Strategies	Sukchae Lee

No.	Date	Title	Speaker
96-05	Apr 9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e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Apr 2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7	May 7	New Issue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ingapore and Beyond	Chulsu Kim
96-08	May 17	Financial Globalization and World Economy: Implications for Korea	Paul A. Volker
96-09	May 21	Cooperation or Conflict? - A European Perspective on East Asia's Place in the Global Economy	Martin Wolf
96-10	May 23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s	Wendy Dobson
96-11	May 28	Japan's Banking Difficulties: Causes and Implications	Hugh Patrick
96-12	Jun 29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13	Jul 9	President Clinton's First Term and Prospects for a Second: Implications for Korea	Robert Warne
96-14	Sep 17	Global Free Trade: A Vision for the Early 21st Century	C. Fred Bergsten
96-15	Oct 22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96-16	Nov 26	The Free Trade Area of Clinton's Second Term: Implications for APEC and Korea	Richard Feinberg

1997

No.	Date	Title	Speaker
97-01	Feb 25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uckwoo Nam
97-02	Mar 18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7-03	May 27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Three Crisis and How We Dealt With Them	William Perry
97-04	Jun 10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7-05	Jul 8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No.	Date	Title	Speaker
97-06	Sep 18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7-07	Oct 21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7-08	Dec 9	The Japanese Economic Slump and Currency Crises in Other East Asian Economies	Ronald McKinnon

1998

No.	Date	Title	Speaker
98-01	Jan 14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98-02	Feb 3	Asian Currency Turmoil and Japan's Role	Takatoshi Kato
98-03	Feb 5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Challenges Facing Korea: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Charles Dallara
98-04	Apr 28	The Significance of the European Economic Monetary Union: in Europe and Beyond	Tue Rohsted
98-05	Jun 23	Asian Currency Crisis: What Has Happened?	Anne O. Krueger
98-06	Sep 17	How to Reform Public Sector Management	Nyum Jin
98-07	Dec 4	Economic Outlook for 1999: Asia and Korea	Hubert Neiss
98-08	Dec 11	North Korea in Global Perspective	Marcus Noland

1999

No.	Date	Title	Speaker
99-01	Feb 11	Korea in the World Economy: An OECD Appreciation of its Newest Member	Donald Johnston
99-02	Mar 5	Prospects for US Stock Exchanges and US Economy	Richard A. Grasso
99-03	Apr 6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ourtis
99-04	May 19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Jul 22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No.	Date	Title	Speaker
99-06	Oct 5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99-07	Dec 2	Global Financial Market: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Robert Hormats
99-08	Dec 14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2000

No.	Date	Title	Speaker
00-01	Jan 19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00-02	Feb 15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Feb 29	Asia Grows, and Japan Slows- Prospect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ourtis
00-04	Mar 28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5	Apr 26	Policies toward Continued Corporate and Financial Reform	Youngkeun Lee
00-06	May 26	Prospects for Mille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00-07	Jun 23	Prospects for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Jul 13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Sep 14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Nov 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2001

No.	Date	Title	Speaker
01-01	Feb 6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Asian and the World Economy	Kenneth S. Courtis
01-02	Feb 27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01-03	Apr 26	Jeffrey Jones' Evaluation of Korean Business and Economy: Overcoming Three 'C's	Jeffrey D. Jones

No.	Date	Title	Speaker
01-04	Jun 5	High Tech, The Consequences of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Jul 9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Jul 19	Outlook on Korea Over the Next Ten Years	Dominic Barton
01-07	Sep 4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land McKinnon
01-08	Oct 9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Korea	Pierre Jacquet
01-09	Nov 6	Globalization and Dangers in the World Economy	Martin Wolf
01-10	Nov 16	Preventing Financial Crises: The Chilean Perspective	Carlos Massad
01-11	Nov 20	The New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2002

No.	Date	Title	Speaker
02-01	Jan 9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2	Jan 1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s?	Francis Fukuyama
02-03	Feb 22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4	Apr 16	US and Global Recovery: For Real?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May 7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ourtis
02-06	Jun 14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Marcus Noland
02-07	Jul 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08	Sep 24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09	Oct 11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0	Oct 22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02-11	Oct 24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No.	Date	Title	Speaker
02-12	Dec 3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No.	Date	Title	Speaker
03-01	Apr 8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May 30	2003 Global Economy and Key Economic Issues: From the OECD's Perspectives	Donald Johnston
03-03	Jun 10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Jul 4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Oct 28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03-06	Nov 4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7	Nov 21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2004

No.	Date	Title	Speaker
04-01	Feb 3	An Outlook for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Apr 7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Apr 21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04-04	Jun 1	- The US Election,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US Economic Performance,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Jul 13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6	Oct 14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04-07	Nov 2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US Trade Policy	Peter F. Cowhey
04-08	Dec 7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 for Korea	Dominic Barton

2005

No.	Date	Title	Speaker
05-01	Jan 18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and Markets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2	Mar 2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3	Apr 12	A Rating Agency Perspective on Korea	Thomas Byrne
05-04	May 10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World Economy	Wendy Dobson
05-05	May 31	Visions of East Asian and Asian-Pacific Integration: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bert Scollay
05-06	Jun 30	Mutual Independence: Asia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Anne O. Krueger
05-07	Sep 1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8	Oct 13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Paul Kennedy
05-09	Oct 28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Bernard Gordon
05-10	Nov 15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2006

No.	Date	Title	Speaker
06-01	Jan 23	US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2	Feb 14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3	Mar 28	Japan's Economic Recovery: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4	Apr 18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George Scalise
06-05	May 10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6	Jun 20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7	Jun 30	Whither China?	Richard N. Cooper
06-08	Jul 20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pbert F. Bruner

No.	Date	Title	Speaker
06-09	Sep 1	Korea and the U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6-10	Sep 12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11	Sep 15	Germany: Understanding the Economic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6-12	Sep 21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6-13	Oct 12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6-14	Nov 9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06-15	Nov 29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2007

No.	Date	Title	Speaker
07-01	Jan 9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2	Feb 13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3	Mar 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07-04	May 3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David Hale
07-05	May 8	Key Trend in the 2008 US Presidential Campaign	Stephen J. Yates
07-06	May 11	Strengthening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7-07	Jun 21	Moving Forward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08	Aug 24	The Korea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09	Oct 4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Guy Sorman
07-10	Oct 19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Tarun Das

No.	Date	Title	Speaker
07-11	Oct 25	Globalization, Diversity and Recruitment of Business Talents	Ben Verwaayen
07-12	Nov 8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Jerald Schiff
07-13	Dec 14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2008

No.	Date	Title	Speaker
08-01	Jan 15	The US "Risk" to Asia and the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2	Mar 25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Robert C. Pozen
08-03	May 14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May 30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Jun 10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	Atsushi Saito
08-06	Jun 18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08-07	Sep 1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Sep 23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Oct 17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Jeffrey Shafer
08-10	Nov 4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ollar, and the Price of Oil	Martin Feldstein
08-11	Dec 9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2009

No.	Date	Title	Speaker
09-01	Jan 13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2	Feb 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09-03	Feb 24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Danny Leipziger
09-04	Feb 25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Mar 19	Obama, Can It Work?	Guy Sorman
09-06	Apr 15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ne O. Krueger
09-07	Jun 23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8	Jul 21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Jeffrey Schott
09-09	Aug 20	Prospects for Investment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Role of IFC and Developing Countries	Lars H. Thunell
09-10	Oct 15	Is a Double-Dip a Realistic Possibility?	SungWon Sohn
09-11	Dec 8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2010

No.	Date	Title	Speaker
10-01	Jan 21	Aftermath of the 'Crisi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10-02	Apr 8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Yukiko Fukagawa
10-03	Apr 22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Mark Mobius
10-04	May 18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Danny Leipziger
10-05	Jul 13	Asia in the Global Economy	Dominique Strauss-Kahn
10-06	Aug 31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7	Oct 15	How Close Are We to a Double-Dip and Deflation?	SungWon Sohn
10-08	Nov 5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No.	Date	Title	Speaker
11-01	Jan 20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11-02	Feb 24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Haruhiko Kuroda
11-03	Mar 23	Europe's Financial Woes	Richard N. Cooper
11-04	Apr 28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5	May 24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Danny Leipziger
11-06	Jun 29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11-07	Aug 30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11-08	Dec 31	Global Economic Turbulence and Investment Implications	SungWon Sohn

2012

No.	Date	Title	Speaker
12-01	Jan 19	US and Global Economy and Markets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Mar 13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Charles Morrison
12-03	Jun 22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NamPyo Suh
12-04	Jul 17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Hans Martens
12-05	Sep 14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12-06	Sep 18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Guy Sorman
12-07	Oct 11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Peter A. Petri
12-08	Oct 29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Nicolas Veron
12-09	Nov 21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Andrew Sheng
12-10	Dec 7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Jean-Pierre Lehmann

2013

No.	Date	Title	Speaker
13-01	Jan 10	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the New Year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13-02	Jan 17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Feb 8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Andreas Dombret
13-04	Mar 22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John Lipsky
13-05	Apr 3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David Hale
13-06	Apr 9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Apr 30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Guy Sorman
13-08	May 21	The Japanese Economy an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Jun 27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Karl-Heinz Paqué
13-10	Jul 19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Bob Davis
13-11	Sep 27	Japanese Politics and Abenomics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World	David Asher
13-12	Nov 15	Korea-China-Japan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er to?	David Philling

2014

No.	Date	Title	Speaker
14-01	Jan 7	U.S. and Global Economies - 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Jan 14	Swiss Made	R. James Breiding
14-03	Feb 20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Gerald Curtis
14-04	Feb 26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elstand Economy	Peter Friedrich
14-05	Mar 5	The Eurozone Economy: Out of Doldrums?	Karl-Heinz Paqué
14-06	Mar 17	The Global Economy 2014	Martin Feldstein
14-07	Apr 3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8	May 16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Roberto Azevedo
14-09	May 23	From BRICs to America	SungWon Sohn

No.	Date	Title	Speaker
14-10	Jul 24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Charles Dallara
14-11	Sep 12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Yukiko Fukagawa
14-12	Sep 26	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Bob Davis
14-13	Oct 17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Anoop Singh
14-14	Nov 14	China's New Economic Strategy and the Korea-China FTA	Zhang Yunlingng

2015

No.	Date	Title	Speaker
15-01	Jan 15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Jeroen Dijsselbloem
15-02	Jan 20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Allen Sinai
15-03	Apr 24	What Makes China Grow?	Lawrence Lau
15-04	Apr 28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Mark W. Lippert
15-05	May 5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Peter Hartz
15-06	Jun 2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Guy Sorman
15-07	Jul 9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Doris Leuthard
15-08	Sep 11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David L. Asher
15-09	Sep 21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Huang Yiping
15-10	Oct 13	Germany's Industry 4.0: Ham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Matthias Machnig
15-11	Oct 29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Dominic Barton
15-12	Nov 12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Sung-won Sohn
15-13	Nov 17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Thomas Byrne
15-14	Dec 10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Huang Haizhou
15-15	Dec 15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No.	Date	Title	Speaker
16-01	Jan 12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Allen Sinai
16-02	Feb 23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Hung Tran
16-03	Mar 2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Anne Krueger
16-04	May 16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Martin Feldstein
16-05	May 24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Gerald Curtis
16-06	Jun 1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Mark Lippert
16-07	Sep 20	How Ready Are W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h-Yeon Kim
16-08	Oct 21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Charles Dallara
16-09	Nov 10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Title	Author
17-01	Jan 19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Allen Sinai
17-02	Mar 13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Martin Feldstein
17-03	Apr 13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Jonathan Woetzel
17-04	Jun 8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Jul 5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Thomas Wieser
17-06	Sep 11	Future of Growth	Simon Baptist
17-07	Oct 19	The Future of Work: Is This Time Different?	Carl Benedikt Frey
17-08	Nov 7	The Current State of US Economy and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US FTA Revision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Title	Author
18-01	Jan 9	U.S. and Global Prospects Looking Ahead	Allen Sinai
18-02	Mar 13	US Protectionism, China's Political Shift and Their Implications Japan's Labor Reform and Future Korea-Japan Cooperation	Ken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Mar 20	Dr. Martin Feldstein's Analysis of the US and Global Economy	Martin Feldstein
18-04	Apr 11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Charles Freeman
18-05	Apr 17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Guy Sorman
18-06	May 15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India, Japan and China	Eisuke Sakakibara

Specialist's Diagnosis**2004**

		Title	Author
04-01		A Crit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Policy	Chong-hyun Nam
04-02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Korea in the World Economy: Challenges and Prospects	Il SaKong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연 번	제 목	저 자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 · 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 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연 번	제 목	저 자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 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 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미관계: 변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용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FTA전망	Jeffrey Schott/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연 번	제 목	저 자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새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0-11	한미관계: 변명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1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기업·금융 관계: 현황과 전망	이용근
00-14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2002

연 번	제 목	저 자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만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美·日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6	9·11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저 자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 · 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3-07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 선거와 韓 · 美 · 日관계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5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6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 · 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제2기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5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9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2006

연 번	제 목	저 자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연 번	제 목	저 자
06-03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경제 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7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8	아시아 공통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09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20년 후의 중국, 어떤 모습일까? -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연 번	제 목	저 자
07-01	한미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12	- 동아시아 경제통합, 어떻게 보나 - 한국경제 및 동아시아경제 전망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 기업	- Guy Sorman - Tarun Das

2008

연 번	제 목	저 자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연 번	제 목	저 자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 국부펀드: 인식과 현실 -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연 번	제 목	저 자
09-01	20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 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6	-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대응 -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교훈과 전망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연 번	제 목	저 자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 과제	Allen Sinai
10-03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4	-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 중국 경제의 虛와 實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런티어 -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저 자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3	중국 경제의 재(再)균형	Yu Yongding
11-04	세계금융질서의 개편: 아시아의 시각	세계경제연구원
11-05	-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기로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혼돈 속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분석과 2012년 전망	Allen Sinai
12-02	- 카이스트의 혁신 - 유로위기 해결책은 없나	- 서남표 - Hans Martens
12-03	- 20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와 아태지역 통합 그리고 한국 -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 David Hale - Hugh Patrick/Gerald Curtis
13-05	-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6	-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외국인인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경제의 비결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 2014년 세계 경제의 향방은?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5	- 세계무역 환경과 세계경제의 미래 -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세계경제 회복, 위기가 기회인가 - 아베 정권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 다카올 미 연준의 QE종료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중국의 신경제 전략과 한-중 FTA	- Bob Davis - Anoop Singh -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저 자
15-01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2	-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Jeroen Dijsselbloem - Mark W. Lippert - Peter Hartz
15-03	-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Lawrence Lau - Guy Sorman
15-04	- 글로벌 에너지(중점)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 H.E. Doris Leuthard - David L. Asher
15-05	-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 Huang Yiping - Matthias Machnig
15-06	-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 Dominic Barton - Sung-won Sohn
15-07	-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 Thomas Byrne - Huang Haizhou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Allen Sinai
16-02	-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 미국의 경제 · 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Hung Tran - Anne Krueger
16-03	-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 Martin Feldstein - Gerald Curtis

연 번	제 목	저 자
16-04	-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Charles Dallara - Mark Lippert

2017

연 번	제 목	저 자
17-01	-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 Allen Sinai
17-02	-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 Martin Feldstein - Jonathan Woetzel
17-03	-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 Thomas Wieser
17-04	- 직업의 미래 - 이번엔 다른가	- Carl Benedikt Frey
17-05	-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기술의 역할 - 미국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 FTA 개정	- Simon Baptist -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연 번	제 목	저 자
18-01	- 펠드스타인 교수가 진단하는 미국과 세계경제 - 2018년 미국과 세계 경제 · 금융 전망	- Martin Feldstein - Allen Sinai
18-02	- 미국 보호주의와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함의 - 일본 노동개혁과 한일 협력의 미래	- Kenneth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 정책 -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	- Charles Freeman - Guy Sorman

보고서 (책자)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94-02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 협력 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세계경제연구원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세계경제연구원
95-03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6-02	세계화시대의 韓·美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세계경제연구원
96-04	세계 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7-02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세계경제연구원
98-02	한반도 통일 및 韓美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김광석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김광석
99-01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구영훈
99-02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미 관계	세계경제연구원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왕윤중
00-02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00-03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01-01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 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Ⅰ)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Ⅱ)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Ⅲ) - 한국경제의 진로	세계경제연구원
03-02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08-01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09-01	최근 세계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경제연구원
10-01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세계경제연구원
10-02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12-01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제: 아시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2-02	문화와 한국경제, 그리고 한류	세계경제연구원
12-03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대, 아시아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13-01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세계경제연구원
13-02	통일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연구원
13-03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길잡이	세계경제연구원
14-01	리더십과 정책의 우선순위	세계경제연구원
15-01	여성과 성장잠재력	세계경제연구원
17-01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IGE Brief+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문화산업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한국경제	남종현
12-02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그 추진방향	이종윤
12-03	유럽 경제위기와 한국의 과제	현정택
12-0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사공 일
12-05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 ombuds맨 제도	이재용
12-06	통일 준비 해둬야	사공 일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사공 일
13-02	금융개혁과 중국의 정치경제	조윤제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경찰관이 폭행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사공 일
14-02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	사공 일
14-03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정부개조	사공 일
14-04	중국의 재부상과 한국: 도전과 기회	사공 일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사공 일

세계경제지평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영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원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주한광

연 번	제 목	저 자
94-06	UR 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중운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 규범	김완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병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적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진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분호
95-08	확산되는特惠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중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 관계	홍원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중운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재용
95-12	해방 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광석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류동길
96-03	단체교섭제도有感	배무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영철
96-06	다변주의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세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상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광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성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병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완순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 허용	김수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적교
97-03	韓賣사태의 敎訓	이재용
97-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영	남덕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實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팔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계섭
97-08	高齡化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종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박진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동길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난 것인가?	남중현
98-02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대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상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영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영탁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종기
99-02	지하철파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수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준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종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광석
99-06	“생산적 복지” 정책의 허와 실	최 광
99-07	세계화시대의 韓中日 經濟協力 強化 方案	사공 일
99-08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결렬과 향후전망	박태호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준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연 번	제 목	저 자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력구조의 부활	이종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운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	이재용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영세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도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영범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종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용 가능성 비교	이재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지홍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 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종윤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김병주/ 고일동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우리 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광석
98-02	한국과 ASEAN 諸國 間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대응 방향	김승진
98-03	국제무역체제의 도전과제	김완순/최낙균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종국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국의 금융 위기와 산업 정책	이영세/정용승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우리나라의 산업·무역 정책 전개 과정	김광석
01-02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영세

전문가 진단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남종현
04-02	외국 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세계 속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특별강연

1993

연 번	제 목	연 사
93-01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경제관계	C. Fred Bergsten
93-02	UR 및 NAFTA의 장래와 한국의 대응	Jeffrey Schott
93-03	국제환경 변화와 세계경제 장·단기 전망	Allen Sinai
93-04	태평양지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	Lawrence Krauss
93-05	21세기 세계구도 변화와 한국	Jacques Attali

1994

연 번	제 목	연 사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동구권 경제전망과 한국의 진출방안	Ronald Freeman
94-06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7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Arthur Dunkel
94-08	新경제의 금융개혁: 평가와 전망	박재윤

1995

연 번	제 목	연 사
95-01	세계화 전략과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	홍재형
95-02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3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6	미국-북한 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7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8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9	국제금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Stanley Fischer
95-10	세계무역기구 - 새로운 도전	Jagdish Bhagwati
95-11	동북아 경제권 개발 전망	Kanamori Hisao
95-12	러시아 정보제도의 현황과 변화 전망	Vadim Kirpitchenko
95-13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96년도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95-14	최근 미국 정치동향과 한미 관계	Thomas Foley

연 번	제 목	연 사
95-15	APEC과 세계무역체제	C. Fred Bergsten
95-16	국제금융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Toyoo Gyohten
95-17	WTO와 세계무역체제	Anne O. Krueger

1996

연 번	제 목	연 사
96-01	세계경제의 도전과 한국	Robert Lawrence
96-02	新경제의 통상정책	박재윤
96-03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기술협약과 한국	Sylvia Ostry
96-04	정보화 시대: 한국의 대응	이석채
96-05	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7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새로운 과제	김철수
96-08	금융세계화와 세계경제	Paul A. Volcker
96-09	세계경제와 동아시아경제: 협력인가, 갈등인가?	Martin Wolf
96-10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6-11	위기에 처한 일본의 은행부문: 원인과 시사점	Hugh Patrick
96-12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13	클린턴 행정부의 업적과 재선 전망 및 한국에 미칠 영향	Robert Warne
96-14	세계무역 - 21세기 비전	C. Fred Bergsten
96-1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96-16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Richard Feinberg

1997

연 번	제 목	연 사
97-01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용	남덕우
97-02	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독의 교훈	Juergen B. Dinges
97-03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Perry
97-04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Graham
97-05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97-06	한미 관계: 변화 속의 안정	W. Anthony Lake
97-07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7-08	일본의 경제침체와 동아시아 통화위기	Ronald McKinnon

1998

연 번	제 목	연 사
98-01	세계화와 국가의 주체성	Guy Sorman
98-02	아시아 통화위기와 일본의 역할	Takatoshi Kato
98-03	한국의 통화 · 금융위기: 미국의 시각	Charles Dallara
98-04	유럽 단일통화(Euro)와 세계금융 질서	Tue Rohsted
98-05	아시아 통화위기: 원인과 전망	Anne O. Krueger
98-06	국가경영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진 념
98-07	99년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전망	Hubert Neiss
98-08	최근 북한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Marcus Noland

1999

연 번	제 목	연 사
99-01	세계 속의 한국경제와 OECD	Donald Johnston
99-02	미국의 경제현황과 주식시장 전망	Richard A. Grasso
99-03	국제금융시장과 달러/엔 환율 전망	Kenneth S. Courti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99-06	한국의 금융세계화, 어떻게 해야 하나?	James P. Rooney
99-07	국제금융시장 전망: 미국경제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Robert Hormats
99-08	한미관계: 변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2000

연 번	제 목	연 사
00-01	2000년도 아시아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4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5	기업 · 금융 구조조정의 향후 정책방향	이용근
00-06	시애틀 이후 WTO와 한미FTA 전망	Jeffrey Schott
00-07	세계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정책대응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지식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새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 · 대외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2001

연 번	제 목	연 사
01-01	2001년 미국, 일본 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내가 본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1-09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협: 긴급진단	Martin Wolf
01-10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1-11	21세기 미일 경제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Marcus Noland

2002

연 번	제 목	연 사
02-01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2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3	아시아 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협	Allen Sinai
02-05	세계경제, 회복되고 있나?	Kenneth S. Courtis
02-06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07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08	2003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Paul F. Gruenwald
02-09	미국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 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0	9·11 사태 1주년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1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2	미국의 IT산업 관련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연 사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2003 세계경제와 한국: OECD의 시각	Donald Johnston
03-03	亞太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03-06	침체된 독일·유럽경제가 주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	Hans Tietmeyer

연 번	제 목	연 사
03-07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2004

연 번	제 목	연 사
04-01	2004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04-04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 관계 -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 韓日 관계 - 미국 경제와 일본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6	아시아 화폐 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7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4-08	아시아 세계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2005

연 번	제 목	연 사
05-01	제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2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3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4	급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경제	Wendy Dobson
05-05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8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Paul Kennedy
05-09	중국의 부상, 어떻게 보아야 하나	Bernard Gordon
05-10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2006

연 번	제 목	연 사
06-01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2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3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4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George Scalise
06-05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6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연 번	제 목	연 사
06-07	20년 후의 중국, 어떻게 될까?	Richard N. Cooper
06-08	세계 M&A 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9	한미 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6-10	아시아 공동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11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6-12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6-13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6-14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6-15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2007

연 번	제 목	연 사
07-01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2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3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전략	Ben Verwaayen
07-04	동아시아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David Hale
07-05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Stephen J. Yates
07-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상강화 어떻게 하나?	Charles Dallara
07-07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08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09	왜 21세기에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Guy Sorman
07-10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기업	Tarun Das
07-11	세계화시대의 기업 인재 확보	Ben Verwaayen
07-12	2008년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전망	Jerald Schiff
07-13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2008

연 번	제 목	연 사
08-01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8-02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인식과 현실	Robert C. Pozen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어떻게 되나?	Charles Dallara

연 번	제 목	연 사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Jeffrey Shafer
08-10	세계금융위기, 달러, 그리고 유가	Martin Feldstein
08-11	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경제 전망	Subir Lall

2009

연 번	제 목	연 사
09-01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2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3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우리의 대응	Danny Leipziger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09-06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우리의 교훈	Anne O. Krueger
09-07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8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한미 협력관계: 과제와 전망	Jeffrey Schott
09-09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투자 전망: IFC와 개도국의 역할	Lars H. Thunell
09-10	과연 더블딥 경제침체는 올 것인가?	손성원
09-11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2010

연 번	제 목	연 사
10-01	위기 이후의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10-02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Yukiko Fukagawa
10-03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론티어	Mark Mobius
10-04	중국 경제의 虛와 實: 과제와 전망	Danny Leipziger
10-05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7	더블딥과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손성원
10-08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연 사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 년 전망	Allen Sinai
11-02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Haruhiko Kuroda

연 번	제 목	연 사
11-03	유럽국가의 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Richard N. Cooper
11-04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5	기रो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11-06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11-07	중국경제 재균형에 관한 특강	Yu Yongding
11-08	격동 속의 세계경제: 전망과 투자전략	손성원

2012

연 번	제 목	연 사
12-01	혼돈 속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Allen Sinai
12-02	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 정책 전망	Charles Morrison
12-03	과학기술 연구대학의 발전과 교육, 경제성장	서남표
12-04	유로 위기: 해결책은 없나?	Hans Martens
12-05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Charles Dallara
12-06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Guy Sorman
12-07	FTA와 아태지역통합, 그리고 한국	Peter A. Petri
12-08	유로 위기: 언제 끝나나?	Nicolas Véron
12-09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Andrew Sheng
12-10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연 사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Andreas Dombret
13-04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John Lipsky
13-05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David Hale
13-06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Guy Sorman
13-08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l-Heinz Paqué
13-10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Bob Davis

연 번	제 목	연 사
13-11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 ·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David Asher
13-12	한중일 정치 · 경제 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David Philling

2014

연 번	제 목	연 사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스위스 메이드	R. James Breiding
14-03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Gerald Curtis
14-04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 경제의 비결	Peter Friedrich
14-05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Karl-Heinz Paqué
14-06	2014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Martin Feldstein
14-07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8	세계무역 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미래	Roberto Azevêdo
14-09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Sung Won Sohn
14-10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Charles Dallara
14-11	아베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Yukiko Fukagawa
14-12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Bob Davis
14-13	다가올 미 연준의 QE 종료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Anoop Singh
14-14	중국의 신경제전략과 한중 FTA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연 사
15-01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Jeroen Dijsselbloem
15-02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3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Lawrence Lau
15-04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Mark W. Lippert
15-05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eter Hartz
15-06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Guy Sorman
15-07	글로벌 에너지 · 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Doris Leuthard
15-08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David L. Asher
15-09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Huang Yiping
15-10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Matthias Machnig
15-11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Dominic Barton
15-12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Sung-won Sohn

연 번	제 목	연 사
15-13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Thomas Byrne
15-14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Huang Haizhou
15-15	동아태지역 국가의 인구 노령화 문제와 경제성장 전망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연 번	제 목	연 사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16-02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Hung Tran
16-03	미국의 경제 · 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ne Krueger
16-04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Martin Feldstein
16-05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Gerald Curtis
16-06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Mark Lippert
16-07	제4차 산업혁명, 우리의 준비는	Doh-Yeon Kim
16-08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Charles Dallara
16-09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연 번	제 목	연 사
17-01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Allen Sinai
17-02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Martin Feldstein
17-03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Jonathan Woetzel
17-04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Thomas Wieser
17-06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기술의 역할	Simon Baptist
17-07	직업의 미래 - 이번엔 다른가	Carl Benedikt Frey
17-08	미국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FTA 개정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연 번	제 목	연 사
18-01	2018년 미국과 세계 경제 · 금융 전망	Allen Sinai
18-02	미국 보호주의와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합의 일본 노동개혁과 한일 협력의 미래	Ken Courtis & Yukiko Fukagawa

연 번	제 목	연 사
18-03	펠드스타인 교수가 진단하는 미국과 세계경제	Martin Feldstein
18-04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 정책	Charles Freeman
18-05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	Guy Sorman
18-06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Eisuke Sakakibara

